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___ 농업회사법인 영인바이오 대표 **최인정** ___ 동물동성당 문화재위원회 **홍성호** 부위원장
___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 & 김현희 커피연구소 대표 **김현희** ___ 곽형호 빵 공방 대표 **곽형호**
___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 ___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이상훈** 팀장 ___ 선현대솔뚜껑갈비 **왕충길, 방순임** 부부
___ 필리핀 **아르세니아** 씨의 군산 정착기 ___ 채만식 탈(脫) 親日汚名은 군산 지성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기부계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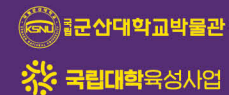
- 전북은행 558-23-0312120
- 신한은행 100-011-581350
- 국민은행 759301-01-595479

예금주: 재) 군산대학교발전지원재단

KSNU
 museum

OPEN
 박물관 갤러리
 잇다

GALLERY it_da



군산대학교박물관은
 이 공간을 통해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박물관 갤러리 잇다」는
 문화와 예술로 사람과 사람, 대학과 지역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실 면적 230m² / 층고 3.4m

2021 학년도 제 31기 CEO / 최고경영 과정생 모집



모집인원 60명

- 지원자격**
- 기업 경영자
 - 전문직·자영업 종사자
 - 대기업·기관단체의 간부
 - 기타 CEO에 준하는 주요 인사
 - 최고경영관리자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교육기간

- 1년 과정(2학기)
- 매주 월요일 19:00~21:30

- 지원절차**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20.11.30.(월)~2021.2.19.(금)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실
(사회과학대학 1층)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통,
사진(반명함판) 1매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합격자 발표 : 2021.2.22(월) (예정)
 - 등록금 납부 : 2021.2.22(월) ~ 2.26(금)
 - 등록금 : 3,000,000원(1년분)
 - 입학식 : 2021년 3월 15일(월) 예정
 - 등록금 납부계좌
전북은행 567-13-0301675
예금주 : 군산대학교
(최고경영자관리자과정)

- 특전**
- CEO과정 수료증 수여
 - 군산대학교의 골프연습장(할인),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요시설 이용
 - 군산대학교 총동문회 및 경영행정대학원 총동문회(군경총)회원 자격 부여
 - 장학금 및 원우회 활동 지원금

등록금 감면

구분	대상
100% 감면자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1억원 이상 기부한 자
50% 감면자	· 과정생 모집(10명) 공로자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5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
30% 감면자	· 과정생 모집(5명) 공로자 · 과정생 수료자의 배우자 · 최고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 가족회사 대표 및 간부 · 군산시경영자협회 소속회원 · 졸업생 중 총동창회 추천자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기부한 자
20% 감면자	· 군산대학교 발전기금 5백만원 이상 기부한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실 (팀장 진형무)로 문의바람
- T. 063-469-4448 F. 063-466-2084
http://www.kunsan.ac.kr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우) 54015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TEL. 063-469-4448 FAX. 063-466-2084
http://www.kunsan.ac.kr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
동국사 앞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동국

옥상 테이블에 앉아 동국사를 훤히 볼 수 있습니다.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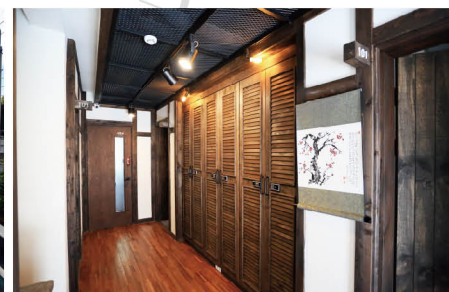
010-5546-0955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7 (월명동 19-11)

blog.naver.com/firegirn



게스트하우스 동국
예약하기



오직 한 길,
71년간 타월만을
고집합니다

松月



이젠 타월도
품격 있는
송월타월로 선물하세요

각종행사용 기념타월 선물세트, 관공서, 교회, 학교, 회사 답례용품,
개업, 결혼, 칠순, 단체행사 등 답례용품, 최신 컴퓨터 도입

松月 송월타월
SONGWOL TOWEL
(주)군산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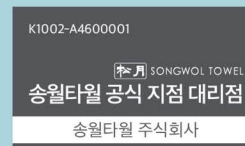
대표_ 류응수

군산대리점_ 군산시 수송동 442-7 (수송동 군산불링장 건너편)

T.063-464-8002 M. 010-3672-5140

군산사랑점_ 군산시 수송동 50-7 (은혜산부인과 / 캐리어에어컨 옆)

T.063-454-8300 M. 010-3953-5140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World Top K-water!

대한민국의 내일이 좀 더 즐거워지도록, 좀 더 행복해지도록!
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상상을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커피와 식사,
그리고
로맨스

:



커피니 군산대 원당점 군산시 원당길 73-5 T. 063-466-8599



세미나 / 회의
행사 / 교육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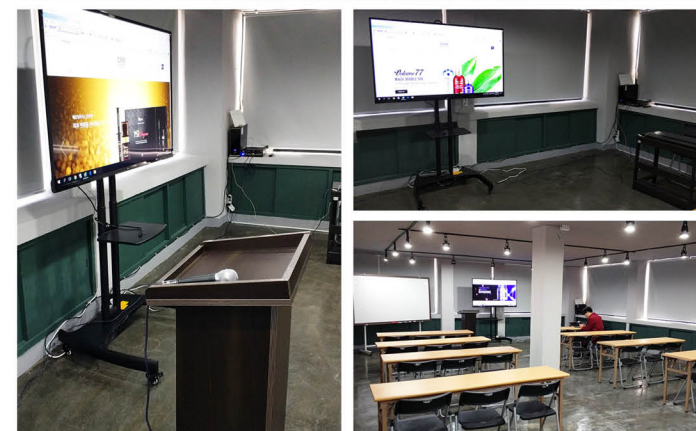
DAHO 301
SEMINAR & MEETING



Guest House **다호**
GUESTHOUSE DAHO

3F 공간대여

세미나 · 회의
강의 · 교육 · 모임
행사 · 프라이빗 파티



게스트하우스 다호
전북 군산시 영화동 22-5
M. 010-9725-8810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꺼야

군산에
귀한손님이 오시면
일제강점기 가옥
게스트하우스 이웃에
모시면 좋습니다

히로쓰가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데크에서
한가로운 저녁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군산 : 거위를 노래하다 촬영장소

미가엘
실용음악
연기학원

한동현 원장

M. 010-8298-5758

T. 063-471-7181

E. jbguitar@naver.com

전북 군산시 나운로4 현대코아빌딩 201호



GUESTHOUSE
IUT



010-4048-8811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2 (군산시 신흥동 57-10)

blog.naver.com/chunulum





방자고기

군산시 미장안길 50-1(미장동)
1동 105호 (G마트 옆)

T. 063-446-7578
대표 한성수 H. 010-6361-7930

단프라BOX
도전성 SHEET BOX
플라스틱 골판지 SHEET BOX
대차(랙)
비닐팩(포장재) 제조
전문업체

O.P.T

Orient Polly Technology

에스제이오피티(주)
군산시 산북로 71-32(산북동)
T. 070-4107-7800 / 063-442-3503
H. 010-7168-0877

대표 서진석 H. 010-9264-5001

수호콜 스카이

간판 / 건물 외벽작업
페인트 / 유리 / 지붕 공사
자재 상하차

대표 심희훈
H. 010-4729-8003



mazing Big Cup



에이비씨커피 소롱동아점
군산시 동아로 147 (산북동)
T. 063-466-6804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아이젠카 건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상품은? 이번달 한 달 동안 업체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 하는 상품입니다.
*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 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 월 납부로 최저가로 건적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개업체 건적이 아닌 복수 견적 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 이메일 답변 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행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 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수송점)_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를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시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119 | 2021.02

	회장·대기자	이복	bok9353@hanmail.net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윤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MAGAZINE GUNSAN COLUMNIST

매거진군산 컬럼진



김선화
군산 YWCA 사무총장
군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위원
전)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ywcags@daum.net



김용환
호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심의위원
전) 군산시발전협의회 의장
kyh@howon.ac.kr



김은정
군산시성문화센터 센터장
군산경실련(전) 사무국장
전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팀장
goni-ej@hanmail.net



김종구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전) 군산시 수도위원회 평가위원
kjg466@kunsan.ac.kr



김희진
고창군 로컬잡센터장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정책기획실장
전북자동차포럼 사업차장
hjinland@naver.com



박수진
군산 노인종합복지관 부관장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수석부회장
yijyisusu@daum.net



박양기
군산시민예술촌 총장
전)진포문화예술원 원장
pygdrum@hanmail.net



박홍근
군산대학교 겸임교수
살롱-Info 대표
군산소룡초등학교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whitelove0208@naver.com



서영미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북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장
sym@howon.ac.kr



송재복
(사)전북미래연구원장
전) Stanford University 객원교수
sjb0814@hanmail.net



심인보
호원대학교 관광레저학부 교수
군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sib@howon.ac.kr



안태욱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센터장
helloceo777@gmail.com



윤영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교수
군산대학교 기획부 차장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youn@kunsan.ac.kr



이강휴
군산 휴내과 원장
길 위의 청년학교 이사장
군산시 의사회 편찬위원
jdreamer0805@naver.com



임병식
연합뉴스 정치매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연구회 상임 부회장
아주경제 논설위원
montlim@hanmail.net



임용택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세계인명사전 부총재
lot@kunsan.ac.kr



정건희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babogh@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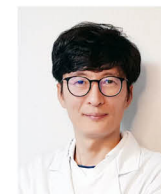
정동원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교수
SC 32 국내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정보기술학회 부회장
djeong@kunsan.ac.kr



채효석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장
국토부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chyosok@gmail.com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
cheon422@jnu.ac.kr



최연길
군산 노불한방병원장
전) 신명한의의원 원장
전) 군산시한의사회장
chshch@hanmail.net



최연성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군산시 정책자문단장
군산발전포럼 의장
yschoi@kunsan.ac.kr



최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 교수
전) 한국어류학회 회장
전) 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회장
choi@kunsan.ac.kr



황진
군산 중앙치과 원장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byul-bada01@naver.com

코로나 시대의 한국 기독교

사회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층 꺾이면서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또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좀처럼 진정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까지 연장했다.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어느 종교 집단보다도 기독교 관련 시설이 말썽이다.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불교나 천주교 등과 달리 유난히 교회나 선교시설 등 기독교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역지침을 하느님과 예수님이 보호해준다면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소상공인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네 이웃'인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는 올해 첫 주일인 1월 3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손현보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감염병 예방법이 교회를 탄압하고 한국을 전체주의화하는 조치", "예배하는 것을 영화관, 식당, 목욕탕보다도 더 억압하고 있다. '다섯 명 모여라,' '열 명 모여라,' '직계가족 외에는 모이지 마라,' '등산 갈 때도 몇 명만 가라' 하는데, 이런 요구에 길들여지면 이게 공산주의"라며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외선교 단체 인터콥의 경우, 상주 BTJ 열방센터 집회를 하면서 상주시가 붙인 집합금지 명령서를 훼손하는가 하면,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검사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다.

여기에 대전 IEM 국제학교, MTS청년학교,

광주의 TCS에이스국제학교 등 기독교 관련 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제4차 재확산 우려에 국민은 또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드러낸 바 있다, 심지어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종교탄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단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난국의 시기에 개신교만 어려운 상황일까?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다. 한국교회에 대해 '하나님 팔이', '개인 자영업자'라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개월째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며 문을 닫고 있는 자영업이 한둘이 아닌데도 한국교회는 '종교탄압'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회가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많은 이들이 안식을 기억하고 예배중심을 강조한다.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에 꼭 대면예배를 강조하고 집단으로 예배를 봐야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대변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고 교회 본질과 대화학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매거진군산 회장
전 군산시의회 의원
이복

현대문구 아저씨

이준식

경욱아, 팬이 이제 그만 사라.
엇그제도 사 갔잖아!
수민아, 지우개 사러 왔나. 저번에 산 분홍색 지우개는 우짜고?
현수야, 학교에 과자 들고 가도 되나.
마치고 나서 사 먹어라.
민규야, 너 살 거 없제.
구경 그만하고 빨리 교실에 가라.
어, 저 친구는 전학 왔나 보네.
니 이름이 뭐꼬?

동시발전소(2019년 겨울호)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 시라고 하고 어린이 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한편의 동시로 마음이 환해집니다. 현대문구란 이름도 익숙하지요. 요즘은 학교 앞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구점, 더욱이 현대문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문구점이 있어, 우리 아이들을 저리 살갑게 대해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비단 문구점뿐이겠어요. 마을 어디라도 우리 아이들을 함께 염려하고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주시는 어른들이 많은 마을과 학교를 꿈꾸어봅니다.

신재순
시인 / 전복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최인정 전 도의원의 새로운 도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제품 브랜드 '셰프의 장·쓰담쓰담'
인기몰이

해외수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셜 벤처기업으로 우뚝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는 소셜 벤처기업이자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로 이 회사는 최인정 전 도의원이 창업한 회사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소셜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인정 전 도의원은 정치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해 창업 2년여 만에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홍콩 등 해외수출까지 이끌어내고 있으며, 흰찰쌀보리 등 지역 농산품과 연계하여 맛, 건강, 신뢰의 3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맛있고 건강한
‘순살게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
브랜드 ‘셰프의 장’과 ‘쓰담쓰담’ 인기몰이

지난 2018년 창업한 농업회사법인 영인바이오(대표 최인정)는 자체 제조한 절임 식품브랜드 ‘셰프의 장’과 외주 가공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인 ‘쓰담쓰담 Dr+’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셰프의 장’은 최인정 대표의 친동생인 최인선 셰프가 직접 만든 특제 양념소스로, 꽃게살 간장게장, 꽃게살 양념게장, 간장 간새우장, 양념 간새우장, 간장 연어장, 와사마요 연어장, 훈제 관자장, 순살꽃게장 양념게장, 순살꽃게장 간장게장, 양념 딱지장, 간장절단 꽃게장, 꽃게살 양념게장, 양념절단 꽃게장 등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절임식품은 껍질이 분리돼 있어 손질의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으로, 양념에 함초 발효액을 첨가해 짠맛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 대사성질환 환자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가장 먹고 싶은 한국의 음식 2위가 ‘꽃게장’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을 시작했으며, 순살만 채취하여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이미 일본, 홍콩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반려동물영양제 ‘쓰담쓰담 닥터플러스’는 군산흰찰쌀보리의 식이섬유에 닭발·황태의 콜라겐을 첨가해 장·당뇨·근골격계질환·피부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다.

특허출원 10-2019-0029648(소화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용 영양제 제조방법 및 이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반려동물영양제)과 기술이전 10-1510418(효모가 첨가된 냉동 발효제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적용해 ‘쓰담쓰담’ 반려동물 종합영양제를 개발했다.

‘쓰담쓰담’은 종합, 콜라겐, 식이섬유 총 3가지이며 각각 환, 파우더, 스틱의 세 가지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의 흰찰쌀보리와 BIO 발효 특허공법으로 콜라겐을 저분자 펩타이드화하여 제작된 것으로 소화 흡수율을 높였으며, 반려동물의 품종별 질환의 증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식이섬유 영양제는 털을 닦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의 장 폐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위장장애, 배변활동, 당뇨, 비만에 효과가 있다.

콜라겐 영양제는 특허 받은 BIO 발효공법을 통해 콜라겐을 저분자 펩타이드로 만들어 흡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털 빠짐, 모질 개선, 근골격계에 효과가 있다.

종합 영양제의 경우, 식이섬유와 콜라겐을 함께 함유한 제품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한국의 맛 축제 요리대회'에서 장맛부문 은상

영인바이오는 창업 1년여 만에 연구를 거쳐 지난 2019년 9월초 최인선 셰프와 런칭한 '함초품은 군산 순살게장'과 '순살 비빔장'을 출시했다.

'함초품은 군산순살게장'은 함초를 사용해 저염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게장으로 모두 국내산으로 제조했으며, 이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살을 발라 만들었다. 아울러 주부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간편한 팩키지에 담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했다.

영인바이오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한국의 맛 축제 요리대회'에서 군산 순살게장을 활용한 게장 비빔밥과 새우초밥, 손말이 김밥을 쳐내 출품해 장맛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최인정 대표는 은상 수상에 대해 "처녀 출전으로 별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수상의 영광을 안아 기쁘다"며 "요리의 품격보다는 영인바이오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상 수상에 이어 '셰프의 장' 제품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 식품코너에 기획판매로 입점해 사랑을 받고 있다.



'쓰담쓰담 닥터 플러스' 와디즈와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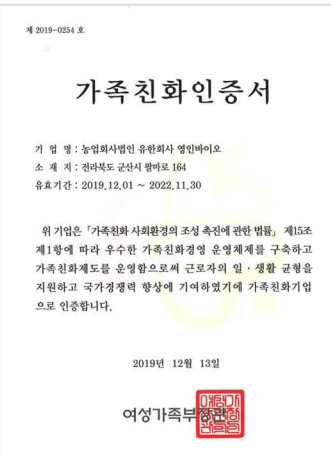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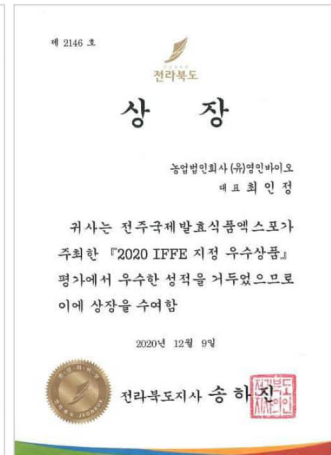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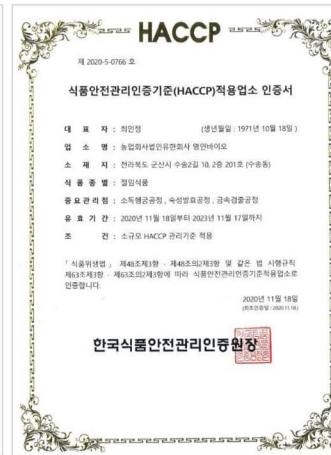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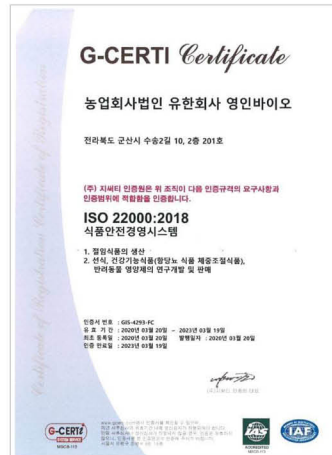
농업회사법인 (유)영인바이오는 연구개발 1년여 만에 반려동물 종합영양제인 '쓰담쓰담 닥터 플러스'를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에 들어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영인바이오는 2019년 11월 크라우드 펀딩사인 와디즈(wadiz)와 제휴를 맺고 반려동물 영양제인 '쓰담쓰담 닥터 플러스'를 펀딩을 통해 출시한 바 있다. 목표 금액의 840%의 리워드 펀딩을 달성하며 이 부문 역대 2위의 성적을 올린 바 있다.

영인바이오가 개발한 '쓰담쓰담 닥터 플러스'는 군산의 지리적 표시 49호인 흰찰쌀보리와 흰찰쌀보리의 맥강을 주성분으로 여러 가지 천연재료로 만든 츄르형 종합영양제다.

츄르 타입이라 그간 연구했던 환, 스틱, 파우더보다 일단 잘 먹고 효과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노견과 노묘에게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더욱 더 적합한 필수 영양제다. 유산균 발효를 통한 저분자 펩타이드 공법으로 만들어져 흡수가 빠르다.





이와 함께 영인바이오는 지난해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와 반려동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노령 반려동물의 영양소재 개발 현황 및 기술 분석'을 주제로 기술교류 네트워크 R&D 기획지원 기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 매월 100kg에 이르는 사료와 영양제를 군산유기견보호소에 기탁하고 있다.

최인정 대표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시장이 연간 10조 원으로 집계될 정도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고, 노령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관련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보유한 특허를 더 개발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며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맛있고 건강한 영양제를 꾸준히 연구, 생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영양제 '마시당개&마시는 고양이' 출시

유한회사 영인바이오가 전개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쓰담쓰담'이 '마시당개'와 '마시는 고양이'를 연이어 출시하며 프리미엄 반려동물 영양제 라인을 보강했다. 앞서 '쓰담쓰담 닥터플러스 종합영양제'로 호평을 받은 쓰담쓰담 브랜드의 기능성 간식분야의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반려동물 3마리 중 1마리는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인간보다 빠른 노령화와 비만을 겪는 반려동물은 각종 관절질환과 피부질환에 취약하다. 이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일수록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주변 환경에 의해 피부건강에 영향을 받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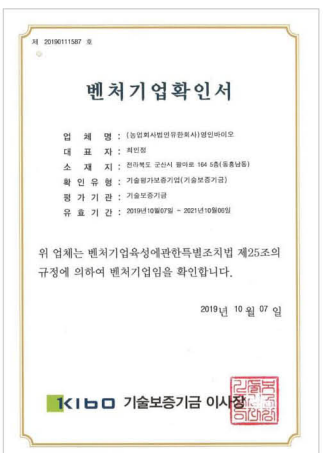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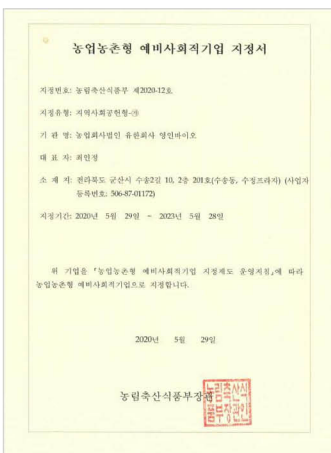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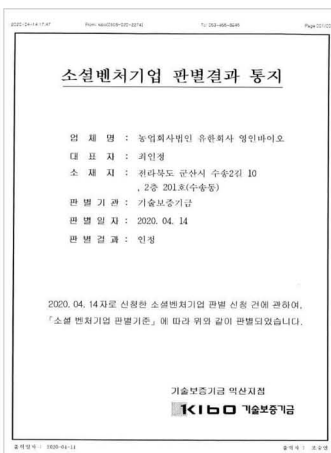
이에 영인바이오는 강아지용 쓰담쓰담 기능성 특화 영양제 '쓰담쓰담 마시당개' 4종과 고양이 전문 맞춤형 기능성 영양제 '마시는 고양이' 4종을 각각 선보였다.

먼저 '쓰담쓰담 마시당개'는 기능성 관절 영양제와 기능성 피부 영양제, 기능성 눈 영양제, 기능성 장 영양제 4종으로 출시됐다. 관절 영양제는 항염과 면역 등에 도움을 주는 초록잎 홍합을 함유했으며, 피부건강 영양제는 피부진정과 항염증 등에 효능을 보이는 알로에 베라겔(Aloe Vera Gel)을 함유했다.

눈 영양제는 아로니아(Aronia berry)와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장 영양제는 소화촉진을 위한 락토바실러스플란타럼과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은 슬개골 탈구의 예방이나 노령견의 관절 관리, 피부질환 예방을 위해 섭취할 수 있고, 어린 강아지의 건강한 발육을 돕는다. 높은 곳에 자주 오르내리는 활발한 강아지나 자주 미끄러지는 강아지,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강아지를 위해 권장된다.

'쓰담쓰담 마시는 고양이'는 눈 건강 영양제와 헤어볼 장 건강 영양제, 관절 영양제, 피부 영양제 총 4종이다. 눈물자국과 노령 고양이의 헤어볼로 인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어린 고양이의 발육을 돕는다. 높은 곳에 자주 오르내리거나 눈과 장이 민감하고 약한 고양이를 위해 추천되는 제품이다.





‘쓰담쓰담 마시당 개와 ‘쓰담쓰담 마시는 고양’ 두 제품 라인 모두 건강의 시작점인 ‘장 건강’을 베이스로 했다는 것이 영인바이오 측의 설명이다. 이에 타 곡류에 비해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흰찰쌀보리를 주원료로 사용했다. 흰찰쌀보리 맥강을 발아시켜 식이섬유와 원료 내 효소성분을 높였으며 소화되기 어려운 유기물을 특허 받은 유산균 발효공법(특허 10-1883154호)으로 체내 흡수가 쉽도록 작은 분자의 영양소로 분해하고 발효과정 중 생성된 유기산이 식중독균,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특히 프락토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증식시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체내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 타 당류보다 칼로리가 낮아 사람에게 비해 몸무게가 적은 반려동물에게 적합하다. 이외에 피부층 진피의 90%를 차지하는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콜라겐’이 베이스로 들어갔다.

또한, 휴먼그레이드 100%로 사람이 먹어도 되는 성분을 사용했으며 방부제나 착향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영양제를 꺼리는 반려동물에게도 간식처럼 간편하게 먹일 수 있는 츄르 타입의 영양제다.

안심당면 편딩

영인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인 ‘쓰담쓰담’은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 전용라면인 ‘안심당면’을 지난 2월 5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선보였다.

영인바이오의 쓰담쓰담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강아지 전용라면인 ‘안심당면’은 기존 라면과 다르게 밀가루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비타민B 군이 풍부한 군산의 지역농산물인 흰찰쌀보리 맥강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반려동물의 장 건강과 지역농가 소득 창출의 두 가지 효과가 있으며, 라면의 가장 문제가 되는 스프의 염을 제거하고, 기호도와 건강을 생각해서 아미노산, 단백질, 콜라겐이 풍부한 황태를 넣어 강아지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안심당면을 개발했다.



안심탕면은 와디즈 펀딩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펀딩은 다양한 리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트라 얼리버드 리워드 내 구매 시 최대 50%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리워드가 정가 대비 2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펀딩 알림 신청 후 참여한 이들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증정하며, 펀딩 진행 후에도 지지 서명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준비 되어 있다.

영인바이오의 최인정 대표는 “자신의 반려동물인 푸들 다로가 퇴근 후 끓여 먹는 라면을 계속 먹고 싶어 하는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라면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로서 강아지의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품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부에서 정한 예비사회적 기업이며, 소셜벤처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영인바이오는 18년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19년도에도 쓰담쓰담 브랜드의 첫 제품인 ‘반려동물 종합영양제’ 쓰담쓰담 Dr.+(닥터플러스)를 와디즈 펀딩사이트를 통해 출시하여 845%의 펀딩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수의사들과 협업하여 반려동물 투약보조제인 Dr. Pat Pat을 개발하였으며, 영양제뿐만 아니라 츠르, 트릿 형태의 기능성 간식도 개발 중에 있다.

해외수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셜 벤처기업으로 우뚝

영인바이오의 ‘셰프의 장’과 ‘쓰담쓰담’이 국내시장을 넘어 일본, 필리핀에 이어 최근에는 홍콩에도 진출하게 됐다. 홍콩의 제1브랜드 백화점인 소고 백화점 기획전에 출품, 현지 반응이 좋으면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좋은 재료만을 품은 셰프의장은 방부제, 착향료, 인공첨가물 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無방부제 + 無착향료 + 無인공첨가물

식품의약품 HACCP 인증 GMP인증받은 건강식품

셰프의장 전제품은 원재료 선별부터 제조, 가공 등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평가하는 HACCP인증을 완료한 식품입니다.



최인선 셰프님께서 생산시스템과 레시피 직접 지도해주시는 모습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혼자 밥 드시는 혼밥 매니아 분
- 입맛없는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
- 도시락 반찬이 걱정이신 분
- 한끼 정말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
- 자지 않고 맛있는 재료가 필요하신 분



홈쇼핑 역시 쿠팡, CJ, 홈플러스까지 BtoB로 전환하여 아직은 적은 물량이지만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해외수출과 더불어 영인바이오는 기업이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과 군산시의 농수산물을 100% 사용해 지역 산업 종사자들의 매출 증대 및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흰찰쌀보리의 경우 군산지역 내 재배면적이 1910ha·133억 원(생산수익 86억 원, 부가소득 47억 원)이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량 증대와 농가 소득 창출의 일석삼조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군산지부와 협약을 갖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정미소와 구매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농산물을 매매하며 생산량 증대, 농가소득 창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인정 대표는 “인구의 유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여성·고령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들을 차별하지 않고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반증하듯 영인바이오는 창업 3년 만에 직원 18명이 채용돼 일을 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이어 최인정 대표는 “군산시의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소득을 높이고 가공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군산의 뿌리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인정 대표는 군산의 농산물인 흰찰쌀보리와 맥강을 이용해 쓰담쓰담 닥터플러스, 마싯당개, 마싯고양, 닥터펫(동물병원 전용 투약보조제), 쓰담쓰담 트릿을 이미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와디즈 펀딩에 들어가는 세계 최초 댕댕이를 위한 라면 ‘안심댕댕면’ 등 끊임 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최인정 대표는 군산의 소상공인과 함께 ‘SHOP IN SHOP’을 운영하려고 한다. 군산의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고, 함께 이윤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소셜 벤처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군산시가 군산시만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식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전국,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여 지역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만듦과 동시에 관광과도 연계하여 군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딩이 결국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시도했다”며,

“농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 기업이자, 소셜벤처 기업으로서 지역 생산가의 소득창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부활동으로 모두 함께 상생하는 군산시를 만드는 것이 영인바이오의 최종 사회적 가치창출의 이념”이라고 말한다.

영인바이오 최인정 대표의 노력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에 위기탈출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의정활동 당시 남보다 “조금 더” 열정을 보였던 최인정 전 도의원이 이제는 CEO 최인정으로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농업회사법인 영인바이오
전북 군산시 수송2길 10 201호
대표 최인정
063-468-8948





군산둔율동성당 '성전신축기(聖殿新築記) 및 건축허가신청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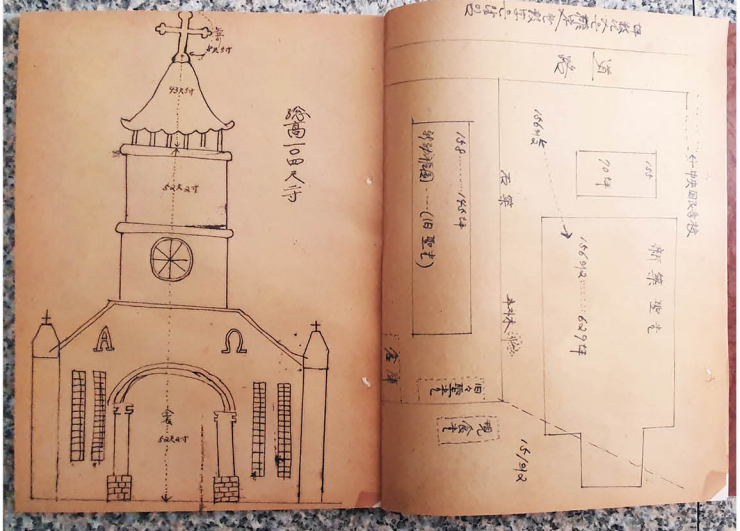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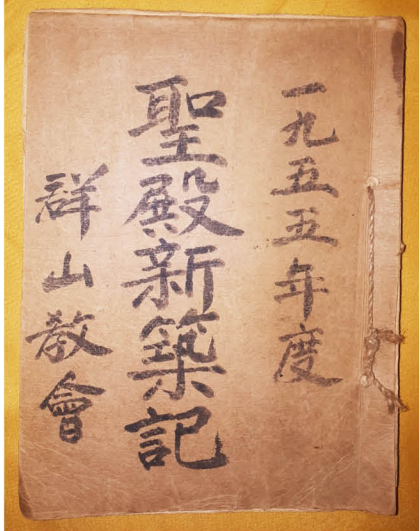
둔율동성당 문화재위원회
홍성호 부위원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둔율동성당의 '성전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가 2020. 12월 말 문화재청의 국가등록문화재 (677-2호)로 등록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둔율동성당의 문화재 부위원장인 홍성호(둔보스코) 씨에 따르면 건물 신축기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전북의 경우 90여개소가 넘는 성당이 있지만 1955년도 건축 당시의 관련 기록이 이처럼 꼼꼼히 작성된 사례는 전북은 물론 전국 어느 성당에서도 확인된 것이 없어 그 희귀성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들려준다.

1915년 군산공소로 출발한 지금의 둔율동성당은 1931년 본당으로 승격되어 군산천주교회(군산성당)로 불리다가 1944년 현재의 성당 부지를 마련, 1955년도 건물을 신축하고 꾸준한 교세 확장으로 1961년 월명동성당을 분리, 신설하면서 둔율동성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55년 건물을 신축할 당시 기록물인 '성전신축기'는 작성자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총 112쪽 분량을 한권으로 묶은 책으로 누런 갱지에 성당건물 외형 도면과 배치도를 비롯하여 건축기간, 건축기금, 신자들의 봉헌 내용, 건축 인력(기술자)명단 및 인부, 각 공종별 자재 구입비, 식대, 주류비, 교통비, 출장비, 방수공사 등의 지출 내역 등 착공부터 준공(1955~1957)에 이르기까지의 공사 내역이 펜글씨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으며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다.



30. 목수기과자 명단

도목수	주소 : 경북 익산군 삼성면 화산리 서인석(아미오)
부도목수	주소 : 경북 옥구군 여야면 통사리 김국영(도비아)목수
• 군산시 비원동 오수철(박로)	
• 군산시 송광동 송창호(오아진)	1956.8.14. 영계
• 익산군 삼성면 화산리 김삼순(오안)	
• 옥구군 여야면 통사리 최근철	

43. 목수총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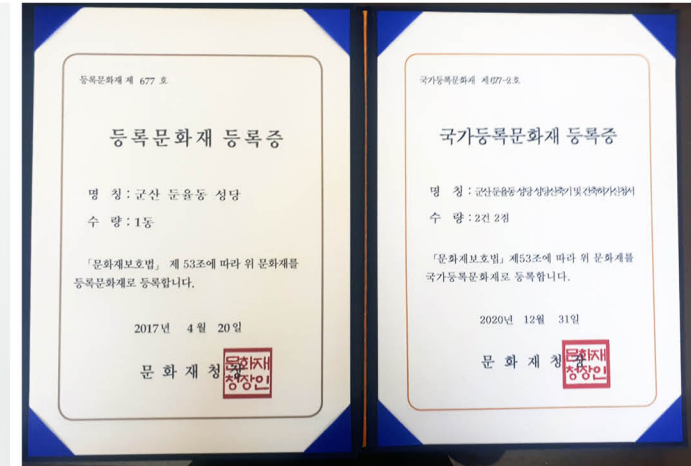
내역	단위	금액
장복식 지 지출금		875,000
장복식 목 지출금		147,700
		1,022,700
별도지출		
사우실건축 (김매복 노목수)	5,500	5,500
연공사 (가시오) 삼향 임금	20,000	20,000
증각 연공사 임금	8,000	8,000
창문 제작공 임금	41,400	41,400
안문 16개 제작공	36,500	36,500
본 제작 추가제작공	19,500	19,500
사우실분 제작공	4,000	4,000
별도 계	183,900	183,900
총계		1,206,600



홍성호 (돈보스코) 문화재 부위원장

9. 4	충역인부 주대(늘값)	270
9. 4	갑과 대급	250
9.15	충역교우 주대(늘값)	140
9.18	갑과 대급	100
9.18	충역교우 주대	780
9.21	시 대급	770
9.21	시 대급	80
9.23	갑과 대급	470
9.24	충역인부 주대(늘값)	935
9.29	주대(늘값)	775
9.29	인부 주대 3회 대급	165
12.05	선일안 연와갑급 증식대	1,400
	계	6,135

10.03	갑과 1가마니	410
10.11	인부 주대 8회	600
10.15	인부 주대	760
10.23	계용주	680
10.23	삼영안 주대	50
10.27	계용주	480
10.27	시 대급	46
11. 6	지형기과자 증식대	1,000
11. 6	갑과 1가마니 (이중환)	340
11.30	역주 화산교우 갑급 증식대	1,390
11.30	마차운 및 선일안 주대	400
12.12	구역장의 증식대	900
	계	7,050



또한 신축기에 수록된 청사진, 신축허가신청서 등 기타 관련 기록들을 통해 둔율동성당의 배치 및 입면 등에서 초기 설계안과 현재의 성당 건물에 신축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거니와 따라서 1950년대 당시의 세부적 건축공사 내역과 관련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 기록으로 동 시대에 이와 유사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홍성호 부위원장은 “이 신축기에서 1955년 당시의 물가 및 인건비와 건축 물량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성당신축기와 도면을 갖춘 유일한 곳으로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예전 모습대로의 복원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성당 건물이 지난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677호로 등록되나 있어 이 신축기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 지난해 성당 자체 문화재분과위원회의 공론화 끝에 소유자인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됐으며 12월에 국가등록문화재 677-2호로 등록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들려준다.

역사는 기록으로서 유의하다. 인간의 저마다의 삶도 개개인의 역사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후세에 역사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장을 지닌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 하고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한다. 삶은 있었지만 기록이 없는 것은 설화로 전해질 뿐 공인된 역사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성당신축기 역시 당시의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여 정리한 그 어느 사람이 있었기에 국가에서 문화재로 인정하고 역사로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군산둔율동성당
군산시 둔배미길24
063)443-2461

성전신축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관련된 총 16개 항목으로 연와(煉瓦), 목재 등과 같은 재료에 의한 구분, 목수 공임과 같은 기술자에 의한 구분, 미장공사와 같은 공종에 의한 구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상의 항목별 공사비는 날짜별로 정리하여 연와부(煉瓦部), 경치석부(境治石部), 목재부(木材部), 양회(洋灰/시멘트)·부사리부(部砂利部/모래), 음식물대(飲食物代), 도료(塗料) 및 염료부(染料部), 전기부(電氣部), 철물부(鐵物部), 수사부, 해초부(海草部), 백회부(白灰/石灰部), 함석부의 순으로 총 12개 부(部)로 구분되어 있다.

성전 신축 과정과 더불어 관련된 각 분야 인물에 대한 기록은 당시 공식적인 건축주였던 서정수 신부를 비롯하여 구역장과 신축 기금에 기여했던 신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신축에 참여했던 기술자 명단은 목수, 연와, 미장, 석공 등의 순으로 7개 부분으로 나누었고, 이들 22명 기술자에 대한 각각의 주소와 이름(세례명이 있는 경우 괄호로 세례명 병기)이 기록되어 있다. 목수 부분에서는 도목수와 부도목수, 목수를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연와기술자는 지휘기술자와 기술자로 구분하였는데 세례명이 있는 기술자는 6명으로서 그중 목수가 5명이다. 주소지가 기록된 기술자 총17명은 군산시 거주자가 12명, 익산군 3명, 옥구군 2명으로서 이로 볼 때 군산 거주 기술자들 주도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어렵고 있다.

1955년 당시 화폐단위는 환(圓)으로서 지출 항목의 대표적 몇 사례를 보면, 노조인부 주대(술값)800, 감자대금 250, 벽돌하선교우 감독 중식대 1,390, 지평기술자 중식대 1,000, 감자 1가마니 410, 새끼(繩)1권 100, 사우실건축 5,500, 증각 연공사 임금 8,000, 창문 제작공 임금 41,000, 강복식(降福式)지출금 1,022,700, 장항출장비 330, 마차운임 17,010, 연와대금(1만매)60,100, 연와자동차운임 30,100, 연와야경비 500, 등등 땀 몇 개 구입한 것까지도 세세히 기록되어 작성자가 얼마나 빈틈없고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된다.



맛과 향이 살아있는 카네스커피(kanescoffee)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 & 김현희 커피연구소

‘그리스의 아침’ 등 자체 브랜드 호평

후진 양성과 재능기부의 삶 추구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카네스(kanes)’라는 이름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커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카네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커피의 맛과 향이 최고의 수준으로 알려진 카네스 커피는 고유 명사이기는 하지만 이 이름을 따 최고의 커피를 직접 생산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익산 목천동에 자리한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김현희 커피연구소’(대표 김현희)이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커피향이 반긴다. 공장 옆 강의실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듯한 다양한 모양의 핸드 드립퍼와 커피 글라인더, 각양각색의 커피 잔들이 가득하다.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는 한마디로 세계 각국의 생두를 수입해 직접 로스팅 하는 회사이다. 부설로 커피 바리스타와 핸드드립 전문가, 커피향미분석 전문가, 로스팅과 커피감별사 등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김현희 커피연구소’를 설립해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커피의 역사

커피나무의 원산지는 이디오피아로서 본 고장에서는 음료보다는 곡류나 두류와 같이 분쇄하여 식량으로 사용되었고, 점차로 아라비아 각 지방으로 분포되어 재배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1세기 초 아라비아의 라제스(A.B.Lazes)와 아비세나(Avicenna) 등의 의학자들이 커피는 위장의 수축을 부드럽게 하여 주는 반면 각성제로 좋은 약이라고 밝히자 그 후부터 하나의 기호음료로 전환되었고 점차 페르시아, 아라비아 전역에서 애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1517년 터키의 세림 1세가 이집트에 원정차 방문하였다가 커피의 애용풍습을 터키에 들여오면서부터였으며, 1554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 화려한 카네스 커피숍(Kanes Coffee shop)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카네스 커피숍은 당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콘스탄티노플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은 항상 이곳에 들러 이국적인 정취와 기이한 커피 맛에 매료된 나머지 각자 자기의 나라에 그 풍습을 전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커피는 급속도로 세계 각국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전역에는 1573년 독일의 의사 라볼프(L.Lavolf)의 기행문에 의해 처음으로 커피가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을 때 러시아 공사 웨베르가 고종과 담소하면서 커피를 권했다고 한다.



이후 고종은 환궁 이후에도 '정헌관'이라는 서양식 집을 짓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곤 했으며, 고종의 시중을 들던 독일 여인 '손탁'은 옛 이화여고 본관이 들어서 있던 중구 정동 29번지의 왕실 소유 땅 184평을 하사받아 '손탁 호텔'을 세웠는데 이곳에서 최초로 커피를 팔게 되었다. (Daum, 한승준 커피창고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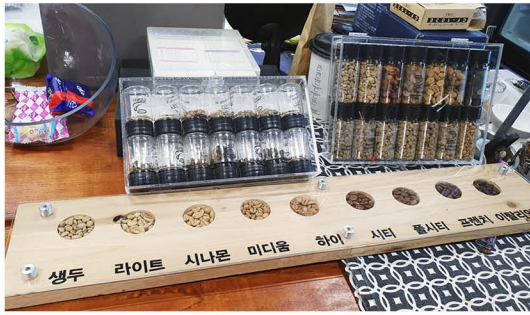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김현희 커피연구소

익산 목천동에 자리한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김현희 커피연구소(대표 김현희)'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커피향이 반긴다.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핸드 드립퍼와 글라인더들이 가득하다.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는 세계 각국의 생두를 직접 로스팅 하는 회사이다. 부설로 커피 바리스타와 핸드드립 전문가, 커피향미분석 전문가, 로스팅과 커피감별사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김현희 커피연구소'는 학생, 일반인 등 바리스타를 배출하는 교육의 산실이다.

오래전 '군산커피교육센터'에서도 활동했던 김현희 대표는 당시의 경험을 살려 취업이나 창업, 취미를 위해 바리스타를 배우려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커피 바리스타를 비롯해 핸드드립 전문가, 커피향미분석 전문가, 커피 감별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많은 바리스타들이 배출되고 있다.

김현희 대표가 커피에 빠져 든 건 오래전 외국을 다니다며 경험한 문화적 충격 때문이다. 40대 초반 다니던 직장에서 외국을 자주 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 우리와는 다른 환경, 즉 외국인들의 일, 노동에 대한 색다른 문화를 경험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은퇴라는 것이 없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신도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커피와 관련된 일을 찾게 된 것이다.

카페를 열어 자신이 직접 바리스타를 하기보다는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커피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다.

90년대 당시만 해도 커피가 대중화되기 전이고 소비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나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도 기호음료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는 선견지명에 회사를 다니면서 커피 관련 일을 준비했던 것이다.

국내 최고의 카네스 커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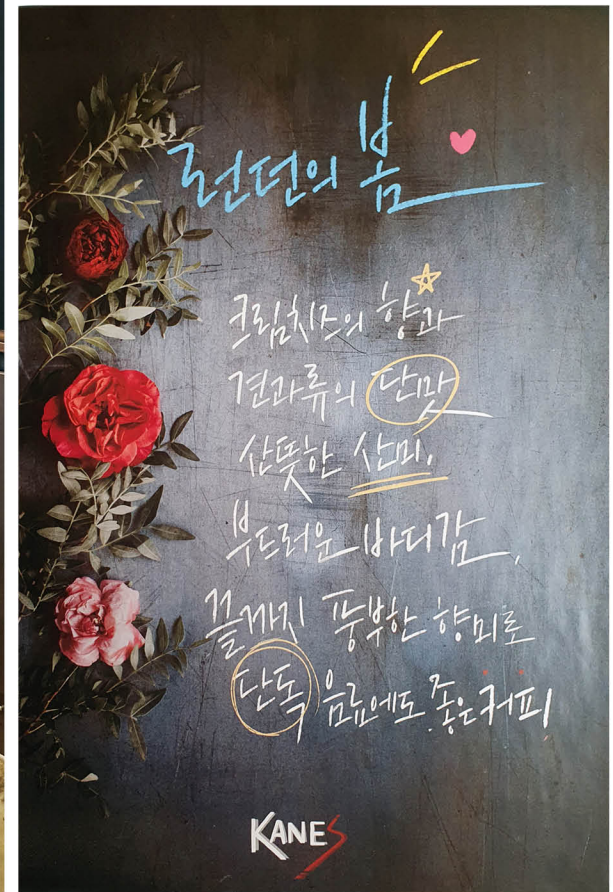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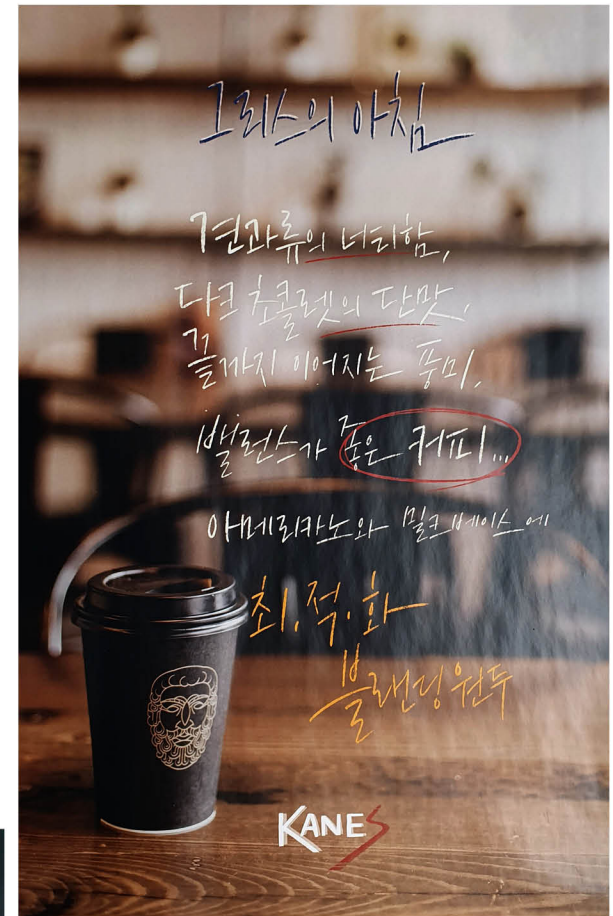
김현희 커피연구소는 타 학원들과 달리 커피 로스팅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김현희 커피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생두를 구입해 로스팅 해 각 나라의 커피 맛과 향을 비교해가며 교육하기에 타 학원과 차별화가 된다.

또한 김현희 대표는 바리스타를 양성하는데 교육생들의 심리치로나 고민 등 상담을 통해 치유하는 소통의 철학을 강조한다. 이렇게 양성된 교육생들은 입에서 입으로 홍보전도사가 되어 신규 교육생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또 로스팅 공장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커피콩을 로스팅 해 고유의 브랜드인 카네스 커피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각 카페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Full Automatic System 기능의 로스팅 머신인 Stron Hold사의 S9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커피를 로스팅을 해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리스의 아침', '런던의 봄', '비 오는 베네치아',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즈' 등 세계 각국의 도시이름을 딴 제품들이 있다.

각 제품마다 독특한 커피향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그리스의 아침'은 2015년 '골든커피 어워드' 에스프레소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견과류의 너티함 (nutty), 다크 초콜릿의 단맛, 끝까지 이어지는 풍미, 밸런스가 좋은 커피, 아메리카노와 밀크베이스에 최적화 된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밖에도 카네스 커피는 2017~2019년 인천 카페쇼 공식원두 후원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 전국 시니어바리스타 챔피언십 공식 후원업체이기도 하다.

후진 양성과 재능기부의 삶

익산 목천동에 자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현희 대표는 이곳이 교통과 접근성이 좋아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한다. 출퇴근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전국 각지에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기에는 이만한 장소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카네기 커피의 맛과 향을 찾는 이라면 어디든 달려 올 때니깐 말이다.

김현희 대표에게는 작은 꿈이 있다. 남은 여생은 바리스타 후진 양성에 전념하며 자신이 배운 커피에 관한 모든 지식을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삶을 살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나눔의 삶을 위해 김 대표는 군산지역 각급 단체나 학교에 후원이나 재능을 기부해 오고 있다. 중·고등학교 직업진로체험은 물론 각종 단체의 행사에 아낌없는 후원을 해오고 있다.

김현희 대표 지난 수십 년간 커피를 배우고 알아 오며, 커피에 빠져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열정을 커피를 좋아하는 후배들에게 전달해 최고의 커피를 보급하는 게 작은 꿈이라면 꿈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며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김현희 대표의 삶은 후회 없이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사는 것 같다고 한다. 이제 김 대표에게는 커피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이다.

진한 커피향과 맛있는 커피를 통해 소통하는 김현희 대표의 카네기 커피가 군산과 익산을 뛰어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함께 동행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카네스 로스트 플랜트 & 김현희 커피연구소
익산시 목천동 66-44
대표 김현희
070-8865-1234 / 010-6645-2758



양평 아카데미

“건강한 빵 만드는 제빵사”

수송동 ‘곽형호 빵 공방’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우리밀 천연발효종 고수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문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수송동에 위치한 ‘곽형호 빵 공방’은 건강하다.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고, 화학 첨가제 대신 천연발효종을 고수한다.

이곳은 <매거진군산> 인터뷰 차 가기 전에도 몇 번 들렀던 곳이다. 몇 분의 지인들의 소개 때문이었다. 밀가루를 매우 좋아하지만 속이 약한 필자에게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속 편한 빵들을 소개해 주고 싶어하였을까.

빵 만드는 청년 형호씨는 이곳에서 베이커리로 도전장을 던졌다. 기술을 배우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제빵에 입문했고, 가게를 창업했다. 자신의 이름 ‘곽형호’를 내건 이곳은 수송동 우체국과 오뚜그란데 1, 2단지 아파트 사이 골목길에 위치해 있다. 문을 열면 이곳의 건강한 빵이 반갑게 반긴다.

‘건강한 빵’을 위해

‘곽형호 빵 공방’. 이곳엔 자신만의 철칙으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곽형호 대표가 있다.

지난 2020년 11월 7일 곽형호 대표는 이곳에서 빵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매장을 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독특히 났다.

곽 대표는 원래 회사원이었다.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큰아버지이자 천연 발효빵 권위자인 곽지원 명장에게 제빵을 배웠다. 기초부터 탄탄히 익혀야 했기 때문에 작업은 고됨의 연속이었다. 2년 가까이 공부했다.

“양평에 있는 곽지원 제빵아카데미에서 배웠어요. 곽지원 명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효모빵을 발현하시고, 그곳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치즈치아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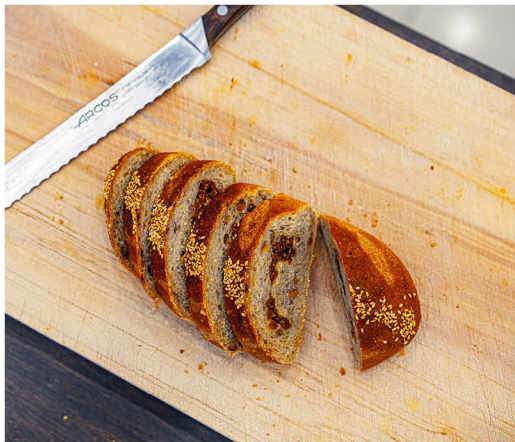
당일 생산 당일 판매

곽형호 대표는 '당일 생산 당일 판매'와 '무(無) 첨가물'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로 생기는 여러 가지 균으로 빵을 배양한다.

"예를 들면 효모균이 있어요. 화학 첨가제도 넣지 않아요. 자연발효종의 경우 건포도, 무화과 등 여러 과일을 시간차를 뒀서 발효하지요."

건포도의 경우 1주일 정도 숙성한다. 착즙기로 원액을 추출해서 액종을 밀가루와 혼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과일들에서 나오는 원액을 추출물 삼아 빵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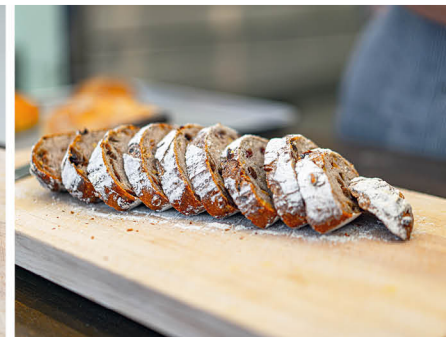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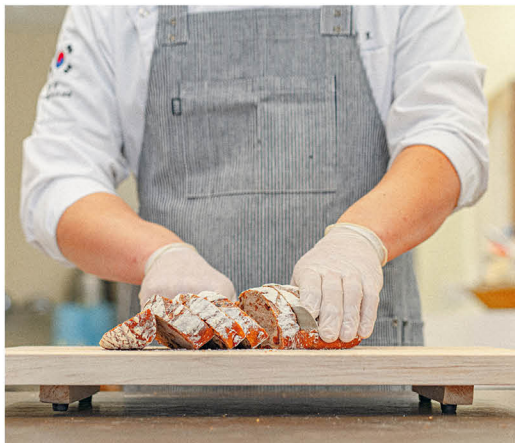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빵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든든한 한 끼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 주는 한 마디다. 이 곳은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빵을 지향한다.

이곳은 건강한 빵을 추구한다.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들이 밥 대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자연 본연을 담은 빵을 만든다.

혼자도 좋고 가족, 친구와 동행해도 좋다. 밥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빵설기

연유바게트

새만금 스페셜

아무거나 드셔 보세요

갈수록 빨리빨리를 외치는 현대 사회.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는 느낌을 추구한다. 먹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손님들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어야 한다는 철칙은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 왔다.

첨가제를 넣지 않은 ‘건강한 빵’은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 소화 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빵을 먹고 난 뒤 생기는 특유의 메스꺼움을 기피하지만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주변에 쟁쟁한 빵집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제가 만드는 빵을 맛보고 또 다시 찾아오길 바라요. 그러니 열심히 땀 흘려 좋은 빵을 만드는 일 밖에는 할 게 없지요.”

자신의 이름을 딴 ‘곽형호 빵 공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그는 다짐했다. 한 번 찾은 손님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게끔 건강한 빵을 만들자고.

“맛있고 건강한 빵을 손님들에게 계속 선보이는 일이 최종 목표”라는 곽형호 대표에게 희망을 읽는다.



곽형호 빵 공방
 군산시 수송남로 36-21층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매주 일요일 휴무



국내 굴지의 1위 태닝 프랜차이즈 전문브랜드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

태닝 뿐 아니라 '약상' 전문샵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구릿빛 피부로 바꿔주는 일반 태닝 외에 여름철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화사하게 바꿔주는 화이트 태닝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는 남성들도 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내 굴지의 1위 전문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는 수송동에 위치한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를 만나보았다.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는 지난 2018년부터 전문 태닝샵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헬스장을 다니던 중 군산에 전문 태닝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국내 유명브랜드인 몰디브태닝 브랜드를 접하고 군산에 오픈하게 되었다.

김도연 대표는 "3년 전, 군산에 첫 오픈 후 태닝 불모지였던 이곳에 많은 고객들이 다녀가 브라운 태닝과 화이트 태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샵이 급성장 할 수 있었다."라고 당시 샵을 오픈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국내 1위 태닝브랜드 '몰디브태닝'

몰디브태닝은 지난 '2019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뷰티미용-태닝 살롱 부문 수상 외에도 국내 태닝샵 최초로 '2017 서비스만족 대상'과 '고객만족 브랜드 가치 1위'를 달성하였고, 현재 전국 40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군산에서는 유일하게 김도연 대표가 몰디브태닝을 운영하고 있다.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는 "여름이 시작될 때는 슬림하고 섹시해 보이며, 건강미를 증대시켜 보이게 하는 브라운(갈색) 태닝을 많이 찾고, 휴가철이 끝날 무렵에는 다시 하얀 피부로 되돌려주는 화이트 태닝의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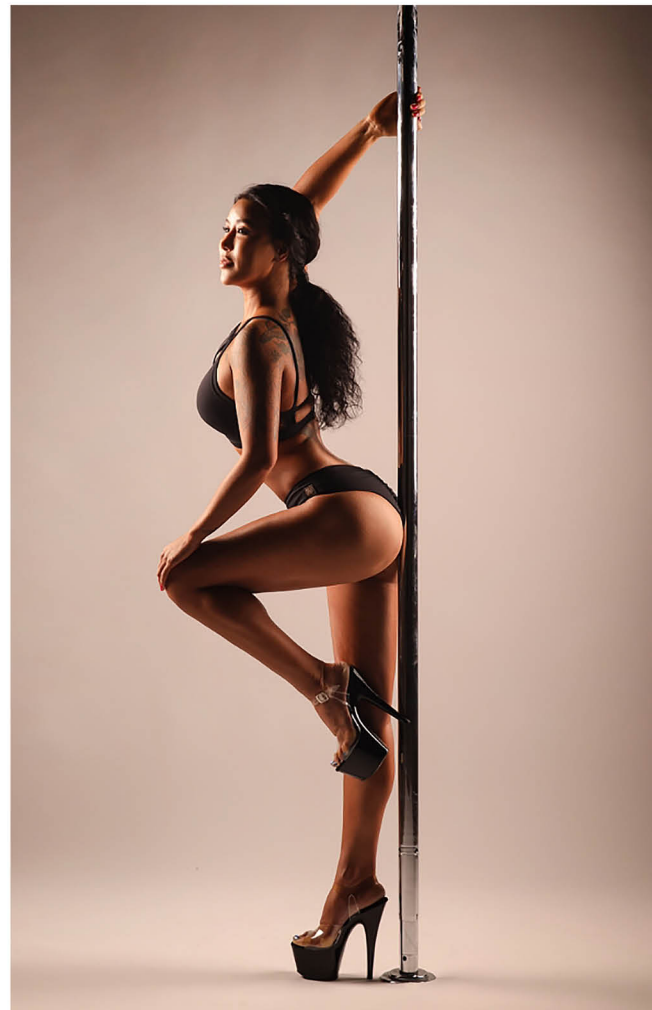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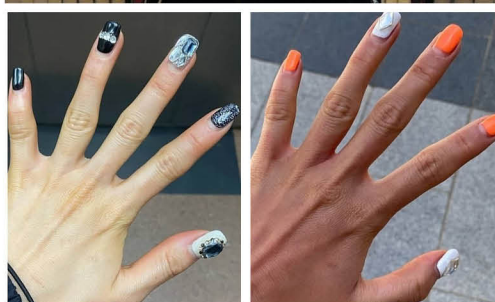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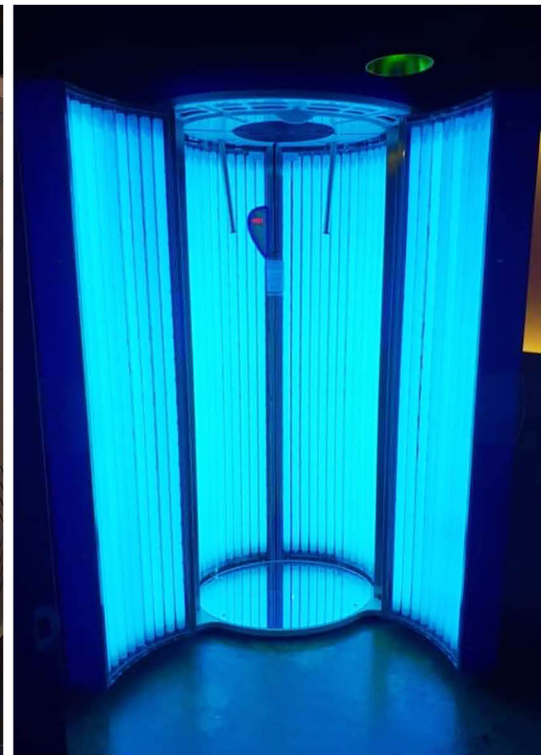
특히 몰디브태닝에서는 신상 슈퍼화이트 로션 'Dr. body balance(닥터 바디 발런스)'를 런칭해 소비자들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몰디브태닝은 지난 2019년 초 이태리 테크노솔사와 6개의 태양이라 불리는 'six sun 슈퍼태닝 머신'을 국내 단독 런칭하는 등 기존 태닝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제품을 런칭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백질 콤파운드 성분을 한 단계 향상시킨 제품으로 좀 더 효과적인 태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r. body balance'(닥터 바디 발런스)는 얼굴과 몸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어 국내 화이트 태닝 로션 시장에 좋은 반응을 보인 2in1프로션의 후속 제품으로 신규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몰디브태닝 김도연 대표는 "화이트 태닝은 태닝기에도 중요하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는 로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닥터 바디 발란스를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태닝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몰디브태닝은 기존 태닝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제품을 런칭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음으로서 지난 2019년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꾸준히 지점과 회원 수가 늘고 있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225와트(브라운) 브라운 태닝머신 추가도입 소비자 만족도 높여

몰디브태닝 군산점은 최근 확장을 했다. 기존 공간이 비좁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것을 확장하고 휴게실과 태닝공간을 넓혔다.

김도연 대표는 “화이트 태닝의 경우 로션이 중요하지만 브라운 태닝의 경우 로션과 머신이 중요하다”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머신을 추가로 구입해 서비스를 높였다. 이탈리아 직수입제품인 화이트 태닝 100와트 태닝머신을 비롯해 브라운 태닝 200와트 등 2대에서 브라운 태닝머신인 225와트(SIX SUN 3)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기존 닥터 바디 발란스에 이어 신제품인 브라운 태닝 ‘이탈리안 블랙’과 ‘블랙체리 No.2’가 출시되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태닝을 하는 인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디빌딩이나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경우 구릿빛 피부를 만들기 위해 태닝샵을 찾는다. 태닝머신 안에서 일정한 자외선을 주며 섹시한 구릿빛 피부를 만들어 준다. 여기에 화이트 태닝을 찾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콜라겐 화이트태닝은 600~76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일종의 라이트 테라피(light therapy)로, 이 광선은 진피층 10mm까지 침투하여 다양한 효과가 있다.

진피 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탄력이 증가하며, 가느다란 라인과 주름이 없어진다. 또한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며, 피부가 부드러워 지고 매끄러워 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피부조직이 촘촘해지며, 에이지스팟이 없어지고 안색이 좋아지는 한편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 피부의 턴 오버를 촉진하여 각질 탈락을 유도해 피부톤이 맑아지며 지성피부의 피지분비를 억제해 번들거림을 줄여주는 효과와 여드름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

김도연 대표는 “피트니스 대회 후 태닝이 큰 몫을 해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씩 받는데, 힘든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선수들이 잊지 않고 연락해 주고 다시 샵을 찾아주고 있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 감사하며 보람을 갖는다.”고 말한다.

“또 화이트 태닝으로 피부가 깨끗하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샵을 방문할 때마다 앞으로 더 좋아질 피부가 기대된다는 회원분들을 만날 때는 이 일에 더욱 신경 써 조금이라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태닝 뿐 아니라 ‘브라질리언 왁싱’ 전문샵

몰디브태닝 군산점은 태닝 뿐 아니라 브라질리언 왁싱 전문샵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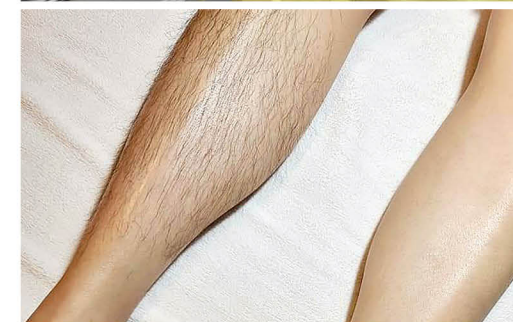
브라질리언 왁싱 시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음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질병 감염 위험이 적어지며, 특히 여성의 경우 월경 시 청결 유지에 도움을 주고 습한 환경이 개선되어 산부인과 질병예방이 된다.

남성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털이 많고 두껍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어려워 이로 인해 따미 항문소양증 등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그렇다고 냄새와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많이 닦아내면 치질에 걸릴 수도 있어 브라질리언 왁싱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몰디브태닝 군산점 김도연 대표는 “태닝은 단순히 피부만 검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회원 한분 한분마다 각자의 피부 성향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닝을 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와 고객만족이 최고가 될 수 있는 태닝샵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은 작은 규모의 태닝샵이지만 최고의 서비스와 효과로 군산의 대표적인 태닝샵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몰디브태닝 군산점을 기대해 본다.

몰디브태닝 군산점
전북 군산시 진포1길 41, 1층
대표 김도연
070-4007-0834 / 010-7588-0834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이상훈 팀장/이학박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으로 급기야 인간의 생존환경조차도 위협받는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992년 UN환경회의에서의 교토협약 및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등 모든 나라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인재 육성과 교육이 시급한 현실로서,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인 이상훈 박사로부터 그 현황과 연구 진행 내용을 들어본다.

군산에서 서천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 이상훈 팀장은 강원도 평창 출신이다. 그가 기후 관련 학자로서 지금의 학문적 일가를 이루고 군산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가히 인간승리의 단편소설이랄 수 있다. 교통수단이라 해봤자 하루 한두 번 다니는 버스가 고작인 평창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비가 드는 고등학교에의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전액 국비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다가 그가 선택한 곳은 부산에 있는 국립 해사(海事)고등학교였다. 입학금, 수업료 및 교복까지 100% 국비 지원과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해사고는 항해사 및 기관사 양성의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마이스터학교로서 학비 부담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 연구동



그는 귀국 후 서울대를 거쳐 이화여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대에서는 생태계와 기후의 상관관계, 기후와 기상 등에 관한 연구원으로 2년 정도 근무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았다. 이후 세종대로 옮겨 3년 반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 43세 무렵이었다. 대학 연구원을 그만 둔 그는 기상청 산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기상청의 경우 2008년부터 영국의 기상수치예보모델을 도입,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약 1,000억 원을 투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열심히 학업에 매진한 이상훈 학생은 졸업 전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3만 톤급 화물선 선원으로서 약 2년에 걸쳐 20여 개 국을 일주하는 동안 그는 선원생활이 생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극심한 뱃멀미로 인하여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원 생활을 그만 둔 그는 해양경찰로 약 2년 반 동안의 군복무를 마친 뒤 1994년도 일본으로 혈혈단신 유학을 떠났다.

일본 6대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호세(法政)대학에 입학한 그는 어학 공부와 더불어 지리학을 전공, 기후 관련 졸업논문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러자 큰 기업에서 관장은 연봉을 제시하며 취업 제의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꿈은 보다 깊이 있는 공부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었기에 취업을 마다하고 니혼(日本)대학 대학원 진학을 선택, 2년 만에 석사, 3년 만에 지구시스템과학 분야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토록 불과 9년이라는 단기간에 세 개의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것에서 그의 학문적 이상과 노력이 얼마나 가열 찬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일본에서 공부하던 8년의 기간은 고난과 함께 한 절치부심의 세월이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이국땅이었기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었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기상, 신문을 돌렸다. 혹시라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신문이 비에 젖기 일쑤여서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다. 외로움 속에서 서럽기도 했고 고국이 그리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모진 고생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자가 되어 고국에 기여하리라는 꿈이 굳건했기 때문이다.





그가 서천 소재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장으로 부임한 것은 2015년도다. 2013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생태원은 전체 직원 500여 명에 연구원만도 300여명에 이르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종합생태연구기관으로서 자연생태계 보전,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생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생태 관광사업, 생태지식문화도서 출간 등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쳐 생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는 기후변화연구팀장으로서 육상생태계의 경우 남산과 한라산, 지리산의 생태계 및 구상나무 고사(枯死) 등에 관하여, 그리고 소양호와 낙동강의 담수호, 함평만과 고래불사구의 귀소생태계를 비롯하여 생물(식물)계절 분야에서는 전국 5개 지역에 자동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 식물의 계절별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비, 나방, 조류의 산란시기와 개체 수 변화, 조류의 종류와 도래시기, 소리 등에서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상훈 팀장의 많은 연구 실적과 논문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생태계 기후 변화(영향, 취약성, 리스크 평가) 연구 사례에서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 건강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생태계의 경우 기온상승, 강수량 증가, 가뭄, 폭풍 등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2)에서 발표한 2050년 기준 환경 전망에서도 지난 40년간 생물종 풍부도는 11% 감소하였으며 2050 현재에 비해 약 10% 감소하고 생물종 멸종은 인간 활동이 없을 때에 비해 약 1,0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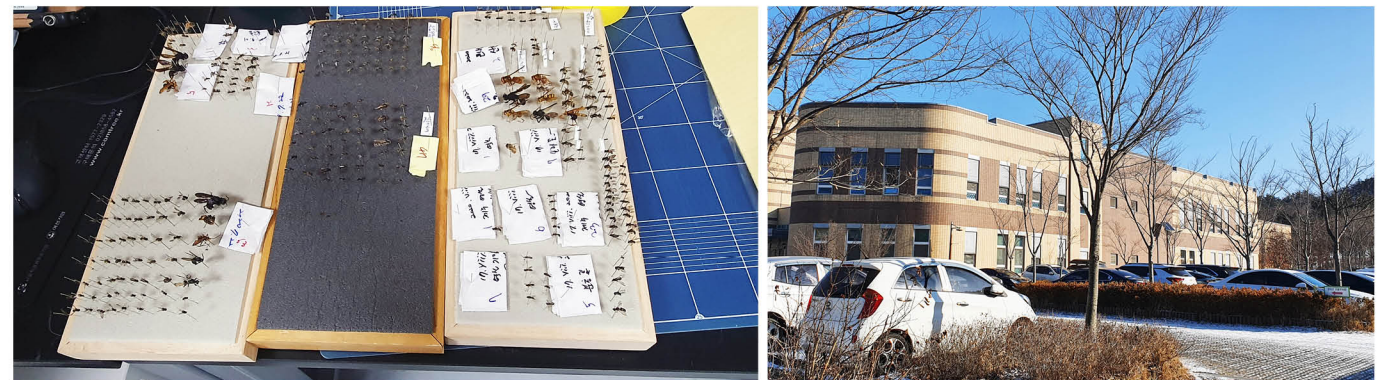


공동 저서들

이러한 생물종 연구는 특히 나방의 다양성과 분포에 대한 장기모니터링 조사를 대표적으로 들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곤충 집단 중 하나인 나방은 식물에 기대어 사는 일차 소비자로서 국내에만도 10과 15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의한 생물 전체의 변화과정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훈 팀장은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리스크 평가'를 비롯하여 '서울 남산 장기모니터링 지역의 나방 다양성' '한라산 장기모니터링지역의 나방 다양성과 분포' '생태계 장기모니터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우리 생태계에 얼마나 위험할까' 등의 연구 사례집을 공동 저술한바 있고, 그간 광주 국제기후 환경센터, 완도수목원, 숲해설가협회, 경기도기후변화학교, 교원연수원, 서천기후변화학교, 군산금강미래체험관(구 철새조망대)등에서의 생태 기후 관련 강의와 함께 현재도 전국 도처에서 강의 요청이 잇달고 있다.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T. 041)950-5300





삼겹살 하면 '선현대숯뚜껑갈비'

쇠고기보다는 삼겹살로 유명
'갈비명절'로 새로운 도전

글 | 이복(맥군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나운동 금호어울림 정문 앞을 지나다 보면 '선현대숯뚜껑갈비'라는 커다란 간판의 상호를 만날 수 있다. 삼겹살 하면 '선현대숯뚜껑갈비'라고 할 정도로 맛집으로 유명하며, 가격이 다른 집에 비해 저렴해 이곳을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군산에서는 단체모임이나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오래전 수송현대 아파트 앞 상가에서 장사를 시작해 현 나운동으로 옮겨 오기까지의 '선현대숯뚜껑갈비'의 역사를 만나보자.



수송동에서 나운동 시대 연 선현대숯뚜껑갈비

나운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선현대숯뚜껑갈비'는 왕충길·방순임 부부가 운영하는 고기전문점이다.

선현대숯뚜껑갈비의 역사는 수송현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시작했다. 비디오 가게가 한창 유행하던 1990년대, 아이들이 만화영화 대신 비디오로 많이 빌려볼 때이다. 왕충길 사장이 단골로 다니던 비디오가게 주인이 비디오 가게를 인수해 한번 해보라는 권유에 당시 집 전세금 1억5,000여만원 전 재산을 털어 권리금 1,200만원과 보증금 300에 월 30만원의 방 하나 딸린 상가에 비디오 가게를 시작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비디오 대여 가격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500원으로 대여가격이 하락했고 유선방송이 시작했다. 기계 전 주인은 비디오 대여점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가게를 넘긴 듯싶었다. 가게를 접어야 할 상황으로 앞이 깜깜했다.

당시 가게 근처에 수송현대아파트가 지어졌다. 아파트 상가를 둘러보니 상가 한 곳이 비어있는데 정육점만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상가 계약을 했지만 정육점에 대한 기술이 없다보니 정육점 오픈은 잠시 미루고 평소 다니던 단골 정육점에 부탁해 부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무보수에 뒷수발을 하면서 어깨 너머로 정육점 일을 배워 나갔고, 저녁에는 소, 돼지고기 부위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소 한 마리, 돼지 열 마리를 보며 공부했다. 정육점 주인은 이들 부부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배워 결국 정육점을 오픈하고 일을 시작했다.

정육점을 찾는 손님들께는 찌개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무슨 두께로 썰어야 하는지, 쇠고기 불고기용 두께 부위 등을 사 가시는 손님께는 요리 방법까지 메모해서 드리고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기도 했다. 열심히 일한 덕에 5년 만에 상가 뒤쪽에서 월세로 하던 정육점을 상가 앞쪽으로 이전하고 상가도 월세가 아닌 자신의 건물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곡동에 위치한 모 갈비집 사장님이 가게에서 쓸 '갈비포'를 떠돌라하셨다. 급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왔는데 가게에서 사용할 갈비가 떨어져 레스피를 줄 테니 갈비를 재어 줄 수 있느냐 해서 재어 주었는데 기존 갈비에 비해 맛있다며 갈비집을 한 번 해보라고 권유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 남편은 정육점을 말고, 부인은 본격적으로 '선현대솔뚜껑갈비'를 오픈하게 되었다.

삼겹살로 유명한 선현대솔뚜껑갈비

선현대솔뚜껑갈비의 대표적인 메뉴는 삼겹살, 오리주물럭, 오리마늘주물럭, 돼지갈비, 한우암소 등이 있지만 쇠고기보다는 삼겹살로 더 알려져 있다. 정육점을 해서 그런지 돼지고기 전문이다.

정육점 시절에 밤을 지새우며 연습에 연습을 한 결과, 소나 돼지고기 요리에는 모두 자신 있었다.

삼겹살 이외에도 찜밥(전골 찜밥), 사골을 우려낸 갈비탕, 쇠고기 양념구이, 육회비빔밥, 육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육회는 선현대솔뚜껑갈비만의 독특한 맛으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위 지인들이 소고기 전문점이 났다고 쇠고기 전문점을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방순임 사장은 세상에서 삼겹살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 삼겹살을 고집한 것이 선현대솔뚜껑갈비가 삼겹살로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다.

선물용 '갈비명절' 포장판매 인기

선현대솔뚜껑갈비의 모든 메뉴가 20년 넘게 지켜 온 것들이기에 어느 하나 대표적인 메뉴가 아닐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갈비명절' 상품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육점 시절부터 갈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 매 명절 때마다 친인척들과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고 맛에 대한 평가를 받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갈비명절'을 선물용으로 개발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식당에 전념하느라 못했던 '갈비명절' 영업허가에서부터 제조업 허가 등 서류등록을 마치고 인터넷 판매 등 현재 시판 중에 있다.

국내산 돼지갈비 100%로 엄선하여 만든 '갈비명절'은 행사선물이나 여행, 야외 바베큐, 가정에서도 손쉽게 요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택배나 퀵배달이 가능하며, 배송비가 무료이다.

왕충길 사장은 갈비명절을 기반으로 해서 5년 후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해 사세를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일'은 삶의 활력소다.

부인 방순임 사장은 지금 하고 있는 선현대솔뚜껑갈비 가게에 대한 전망과 계획도 세워 뒀다. 항상 그랬듯이 오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은 다시 절대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매순간 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어떤 분들은 힘들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항상 말했듯이 누가 나에게 일할래? 놀러 갈래? 물으면 난 일을 하겠다"고 방 사장은 답한다. 일을 하는 것이 노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며, 고로 방 사장은 즐기며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은 삶의 활력소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면 선현대솔뚜껑갈비는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선현대솔뚜껑갈비 방순임 사장은 가게 운영 이외에 틈틈이 봉사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직원들이 많을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상담공부를 해서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로도 활동했으며, 군여성, 서천고 등에 나가 성폭력 방지 강의와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등 봉사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례 없던 시기를 겪으면서 일할 수 있는 행복이 얼마나 더 큰지 알게 되었다는 방순임 사장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이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 했던 갈비명절을 뛰어서 알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한다.

선현대솔뚜껑갈비(갈비명가)
대표 왕충길
전북 군산시 서수송길 17
063)465-9906





“이제는 저도
한국아줌마예요”

필리핀 '아르세니아' 씨의
군산 정착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에 정착한 다문화가구는 2020년 기준 1,885 가구로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필리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다문화 학생 수만 봐도 지난 10여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이제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 글로벌 결혼이 보편화됨으로써 다문화 가구는 꾸준히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의 필리핀 이주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주로 산업 현장에 고용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아르세니아(한국명 김신애/50)씨가 한국에 정착한 것은 24년 전인 그녀 나이 26세 때다.

필리핀 제1의 섬으로 넓이 10만4,700km에 인구 2,400만에 달하는 루손(Luzon)섬의 벵게트(Benguet)주가 고향인 그녀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당시 선교활동 차 필리핀에 왔던 지금의 남편 박병근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 역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터여서 이러한 신앙적 유대감이 서로에게 호감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적인 편지로 아르세니아에게 구애를 했다.

하지만 친정 부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사실 남편이 13년 연상이기도 한데다가 지금이야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당시만 해도 불과 11,000불 정도의 개발도상국으로 인식되던 시기여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타국 남자에게 선뜻 딸을 주고 싶지 않았을 법도 하다. 하지만 남자 측의 구애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게 되면서 아르세니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결혼 승낙을 받기에 이르는데 이들은 1996년 필리핀에서 먼저 혼례를 치르고 한국에 들어와 친지들의 축하 속에 다시 한 번 예식을 올렸다.





정착 초기의 아르세니아(왼쪽)



아르세니아(좌에서 두번째)



이주여성 단합행사(뒷줄 왼쪽 아르세니아)

낮선 나라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선 언어의 장벽에다가 음식이 맞지 않는 등 문화 차이로 인한 고생이 적지 않았다. 남편은 영어사전과 한글사전을 앞에 놓고 그녀가 한국말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쉬운 일상어부터 가르쳤다. 남편의 지극정성 사랑과 보살핌으로 점점 한국생활에 적응은 되고 있었지만 돌아켜보면 처음 2~3년간은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을 빨리 극복하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 했기에 적응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

이들 부부는 신시도에 정착, '한라낙시·민박·Hits집'을 운영 중이다. 주민 90%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시도는 부근인 박병근 씨가 신시도성결교회 집사이자 어촌계장으로서 부부가 꾸준한 신앙생활과 함께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 아르세니아의 모범적 정착기가 입소문을 타서인지 지난 2002.5월 'KBS 피플 세상속으로'를 비롯하여 '2003.CBS새롭게 하소서' 'MBC임성훈과 함께' 'KBS인간극장' '2004.KBS아침마당' '2006.KBS 6시내고향' '2007.SBS생방송투데이' '2008.WBC다문화가정이야기'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 영화시선 1318(달리는 차운)' '2010.KTV휴먼다큐' 'MBC우리는 한국인' 등 수많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취재, 소개된바 있다.

이주여성 길잡이가 되어준 세노야봉사단

필리핀 이주여성 회장을 맡고 있던 아르세니아가 세노야봉사단(단장 채영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5년 전이다. 당시 출범 2년차이던 세노야봉사단은 가건모의 이주여성돕기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이주여성 회장이던 아르세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채 단장 자택에 이들 약 20여명을 초청, 한국전통음식 만들기과 한국문화, 예절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영화동 소재 여성회관에서 요리수업, 예절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 특히 명절 때 이들을 초청하여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나누며 명절임에도 고국에 가지 못하는 그녀들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애뜻한 마음을 나누었을 때는 이국 같지 않은 따뜻한 온정을 느꼈다는 여성들이 많았다.

아르세니아에 따르면 그 당시만 해도 엄마들이 젊어 비교적 시간을 내기가 수월했던 관계로 단합대회나 봉사활동 등의 참여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약 100여명 내외에서 개별적 교류가 이루어질 뿐

이주여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의가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단합행사를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들려준다. 사실 그녀 역시 식당, 낚싯배, 민박업 등을 하다 보니 개인적 여가를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남편의 지원 속에 수협에서 운영하는 단원 70명 규모의 한여름봉사회에 참여, 바다쓰레기 청소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세노야봉사단 활동에도 동참하고 싶다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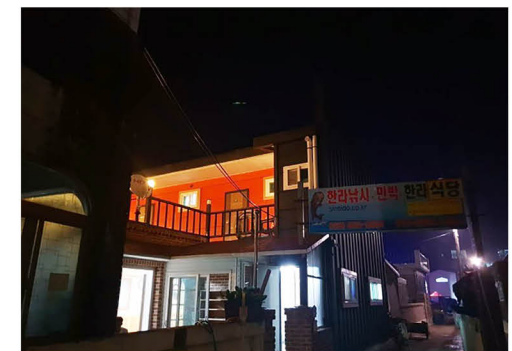
아직 미혼인 간호사, 영양사 딸만 둘을 두고 이제 한국아줌마로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아르세니아 씨, 한 가지 아쉬움은 남편과 같이 해마다 필리핀 친정에 다녀오고 그곳 형제, 자매도 종종 군산에 다녀가는데 정착 친정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한 번도 한국에 오시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한국의 방송에 소개된 모습이며 평소 일상을 영상에 담아 보내드리고 있다면서 부모님이 그 영상으로 딸과 외손녀를 보면서 무척 흐뭇해하신다는 말을 들려준다.

채영숙 단장에 따르면 15년 전 아르세니아는 젊고 예쁜데다가 성격이 밝고 리더십이 있어 누구한테나 호감을 주었고 모임을 잘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오직 남편 하나만 믿고 낮선 나라 한국에 들어와 지난 26년 동안 등직한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의 기틀을 이루기까지 문화적 차이에서 그녀가 겪은 애환도 많았을 터이다.

신시도의 자랑 '한라Hits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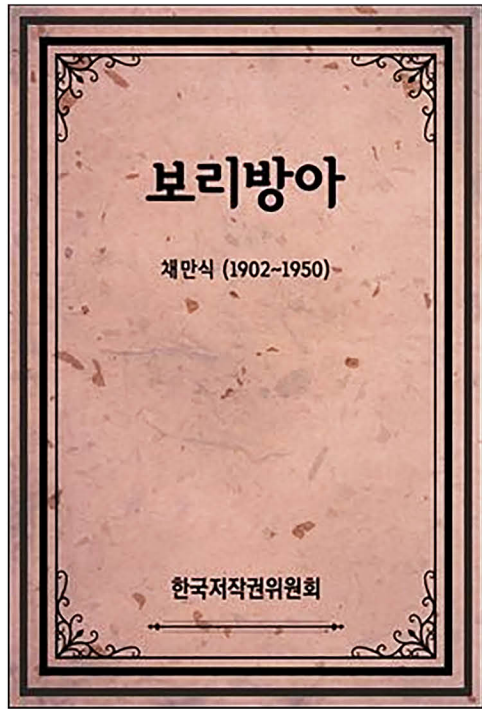
그녀 부부가 운영하는 한라낙시·민박·Hits집은 이미 많은 방송에서 소개된 것처럼 고군산 청정해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회를 저렴한 가격대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서 스스로 신시도의 자랑이라는 자부심에 차있다. 이러한 업소로 성장하기까지 그들 부부가 기울인 그간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데 이처럼 당차게 집 안팎의 일을 비롯하여 사회적 인간관계의 폭도 넓히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녀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한국아줌마다.

한라낙시·민박·Hits집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26-1
063)463-9994



채만식 탈(脫) 親日汚名은 군산 지성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글 | 한상희(소설가)
carpenter052@naver.com



근대 조선 문단 작가 중에서 채만식(蔡萬植)만큼 다량의 작품을 쏟아낸 인물은 전무했다. 그는 나이 50도 못 채운 짧은 생애 동안 15편의 중·장편 소설과 70여 편의 단편, 30여 편의 희곡·춘극·시나리오와 40여 편의 문학평론, 그리고 140여 편의 수필과 잡문 등, 시(詩)를 제외한 전 장르에서 괄목할만한 족적을 남겼다.

그의 왕성한 필력으로 보아 다른 작가들처럼 장수했다더라면 유작들이 최소 2배 이상은 됐을 것이다. 그의 문학적 업적을 입증이라도 하듯, 도서출판 창작과비평사가 지난 1989년 펴낸 <채만식 전집>은 모두 10권으로, 분량이 권당 400~700쪽에 달한다.

양(量)만이 아니라 질적(質的)인 면에서도 채만식은 동시대 작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추월할 수 없는, 단연 으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타인과 어울리거나 타협하기 힘든 결벽증과 도를 넘는 '신경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평생 고독과 싸워야 했다. 이것이 그의 왕성한 창작력의 원천이기도 했다.

하물며 자신의 작품 속 부정적 인물에 대한 증오심도 유별났던 그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괴롭혔던 가난조차도 그의 문학창작 열정만은 꺾지 못했다. 그의 신경질적인 성격은 아들을 중시한 그 집안의 막내아들로 성장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원고지와 처절한 씨름을 했으나 가난에서만은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무지한 독자들이 풍자와 반어·역설·아이러니로 가득 찬 그의 범상치 않은 칼칼한 문장들을 감히 돈 주고 사 보기가 까다로웠던 탓일까?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다행히 천재작가 채만식이 자신의 문패를 가져 본 적은 딱 한번 있었다.

1948년 6월 장편 <탁류> 3판 인쇄와 <잘난 사람들> 원고료를 보태 어렵게 전북 익산시 주현동에 처음으로 기와집을 산 것이다. 그러나 1년 2개월 만에 그 소중한 집도 팔아 익산시 마동 296번지 소재 초가집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사망(1950년 6월 11일)했다.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견했던 것일까? 애석하게도 줄지에 그의 대표작 <레디메이드 인생>에 나오는 '갈 곳 없는 초상집의 개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가 남긴 작품들이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으나, 정작 그의 삶은 행복보다는 거의 불행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 역시 가난에 허덕이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다.

평생 추구해 온 식민지 현실과 민족에 대한 소설적 탐험 이면에 그의 가족들은 장작불과 같은 가정 내 갈등과 이산(離散)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 혹독했던 고통이 세대를 넘어 친일오명(親日汚名)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채만식 본처 은선홍

중앙고보 시절(1919년) 부모의 강요로 고향에 내려와 결혼해야 했던 본처 은선홍(殷善興, 1901~1993년 10월 21일, 남양주군 공동묘지)씨는 평생 모 파상의 <여자의 일생>처럼 비운으로 살다 93세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이 둘 간의 관계가 너무도 유명해 상세한 기술은 생략하겠다.

특히 둘의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것은 두 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인 무열(武烈, 1926~1945)이 20살 때 말라리아로 사망한 이후였다. 둘째 아들은 계열(桂烈, 1928~2004)이다. 그녀는 나중에 남편과 별거하다시피하면서 어느 고아를 수양딸로 삼아 호적에 올리기도 했다.

그 후, 채만식은 숙명여고 출신인 하숙집 딸 新여성 김시영(金?榮)과 동거해 2남 1녀를 낳았다. 동거 시점은 정확치 않으나 장남(炳焄)이 1942년생, 딸(永實)이 44년생, 차남(永焄)이 47년생임을 감안하면, 3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만식은 임종 때까지 본처 대신 김 씨와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 역시 정은 없었다. 채만식이 한국동란 직전 익산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김시영은 슬하의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해 버린 것이다.

그 후 자식들은 고아원을 전전했고, 백부(채만식의 큰형 明植)가 이들을 찾으려 애를 썼다고 한다. 현재 김시영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들인 병훈과 영훈은 모두 사망했고, 딸 영실(79세)은 출가하여 비구승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실 씨가 어떤 연유로 비구니가 됐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그녀가 채만식 친족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2000년 초 군산 채만식문학관 개관식 때 초대를 받아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지금까지 오리무중이다.

우리 이제 일제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경미한 親日문제로 마음 고생하다 간 채만식과 불행했던 그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 심약하기 그지없는 그가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경미한 친일전력을 뉘우친 것만으로도 그의 결백증이 입증되지 않았는가? 당시 어느 누가 그 같은 양심선언을 했는가?(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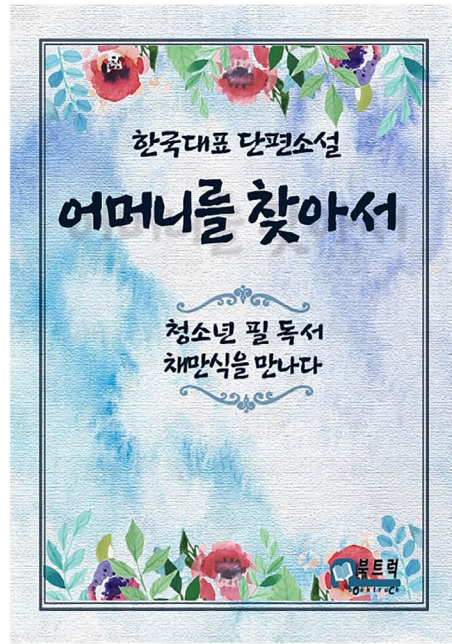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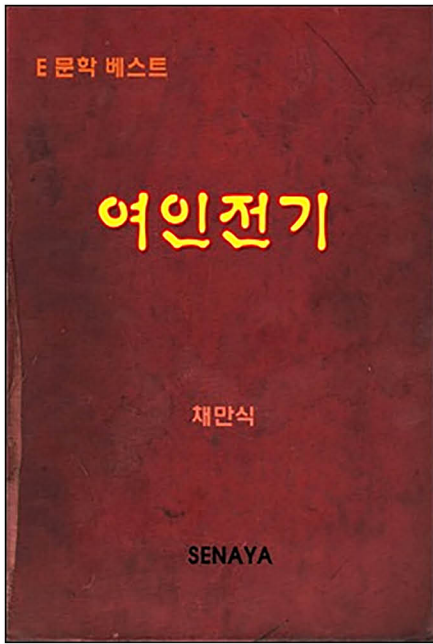
아래 글은 탈고는 됐으나 未발표(2021년 중 공식발표 예정)된 나의 또 다른 장편소설(가칭 가마골 百畝)에서 나오는 채만식 관련 내용이다. 같은 소설가의 한 사람으로서 채만식 같은 훌륭한 작가가 말도 안 되는 친일 프레임에 걸려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참 아프다. 조속한 시일 내 그에 대한 오해가 풀려 군산시가 낳은 한국 최고의 작가 채만식과 비참했던 그의 가족들 명예가 다시 회복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이다.

“오빠는 소설가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당시 탁월한 국내 소설가는 많지만, 그들 중에서도 채만식 작가를 제일 좋아하지.”

“어째서요?”

“그가 풍자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진면목은 자기만의 특유한 ‘알레고리’를 만들어 일제 경찰의 감시를 속여 가며 항일운동을 한데서 드러나지.”



장편 가마골 뽕술/ 소설 속 시제는 채만식이 임종하기 전인 1940년대 말임

“어떻게요?”

“예를 들어, 1943년에는 장편 <어머니를 찾아서>를 통해 알레고리적으로 민족수난사를 형상화하려 했으나, 그것이 일제에 의해 검열로 드러나자 <여인전기>를 통해 항일(抗日)을 은연중 표현하기도 했어. 이는 당시 어느 작가에 의해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천재 작가야.”

“그 분이 그렇게 탁월했어요? <탁류>, <태평천하> 등 말만 들었지 아직까진 그 분 작품을 읽어보질 않았거든요.”

“내가 구해다 줄게. 틈틈이 한번 읽어봐요.”

“채만식 소설가도 카프였나요?”

“아니. 임화는 주축이었지만, 채만식은 카프라고 하기 보다는 변방, 즉 아웃사이드에 속했었지.”

카프는(KAPF 코아쁘오)는 1925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문학단체이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cio)은 계급의식에 입각한 조직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계급혁명운동을 목적으로 삼았었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카프 문학 운동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작가 검거에 광적이었다. 채만식은 1924년 조선 문단에 단편<새길로>를 발표해 등단하였다. 그는 카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희곡 <인형의 집을 나와서, 1933년> 등에서 엿보이는 초기의 작품 경향은 카프의 경향과 문학과 심정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동반자적 작가로 분류되어 오기도 했다.

“지금도 살아있나요?”

“내가 듣기엔 익산 형네 집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채만식은 1936년부터 기자직을 버리고 본격적인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농촌의 현실을 그린 <보리방아>가 검열로 인해 연재 중단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후 대표작인 중편 <태평천하, 1937>와 장편 <탁류, 1937>를 발표해 작가적인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역설적인 풍자 기법이 돋보이는 <태평천하>와 1930년대의 부조리한 사회상을 바라보는 냉소적 시선에 통속성이 가미된 <탁류>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한 <금의 정열, 1939>은 완전 통속 소설이라는 냉소를 받았다. 또한, 채만식은 1943년부터 <조선문인보국회>에 간부도 아닌 일개 평의원으로 가담하여 친일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전력으로 인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단 중 친일단체 부문에 포함되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저도 만약에 글을 쓴다면, 채만식 같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승순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기대해 볼게.”

“그런데, 외국작가로는 누구 좋아해요?”

“훌륭한 작가들이 너무도 많아 딱히 누구라고 꼬집기는 뭐하지만, 프랑스 대문호 발자크가 쓴 <계곡의 백합>을 추천하고 싶어?”

“왜요?”

“그 작품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관능적인 사랑의 차이를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승순 씨가 그 작품을 읽으면 모르소프 백작부인의 고통어린 진정한 사랑의 정신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중략)

끝으로, 다른 지역도 아닌 전라도 내에서 채만식 작가에게 친일작가 오명(汚名)을 부치지 못해 안달인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필자는 이들을 영혼도 없는 전라도의 문학 역적으로 감히 표하고 싶다. 그러기에 앞서 그에 관한 책을 단 한 권이라도 더 읽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함양미달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친일여부 가리지 않고 문학관을 유지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는데, 왜 군산시와 전라북도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망설여지지만, 그건 바로 이 지역의 숨길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수준과도 직결돼 있다고 본다.

채만식 문학관 관장이나 군산 문협 등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너무도 함양 미달이다. 이 점을 여기서 조목조목 지적하지 않아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조치로, 군산시는 조속히 전국 공모를 통해서라도 문학을 정통으로 전공한 박사급 채만식 문학관 관장 적격자를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채만식에 대한 왜곡 기도에 이론적으로 적절히 대처하면서 군산의 자존심인 문학관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을 진정 사랑하는 군산 지성인들이 팔 걷어 부치고 고향의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전공이 영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에 내려와 그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채만식에 대해 연구하고 그의 腕 친일오명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거두절미하고, 천혜의 삶 조건을 갖춘 군산시를 사랑하는 필자의 이 충정 하나만은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누가 뭐래도 채만식 작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한국이 낳은 천재작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윤동주 시인은 창씨개명을 했지만, 채만식은 끝까지 거부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항일 작가 정신을 입증하고도 남지 않는가?

못내 아쉬이지만, 필자는 차기 집필 계획에 따라 군산매거진 연재 글 기고를 여기서 중단할까 한다.

필자가 군산시에 정착한지 벌써 1년 6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올해부터 숙원이던 한국 최초의 <민중미술사, A4 규모 700쪽 이상 단행본> 집필 대장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 사이 평균 매권 400쪽 분량의 장편소설 5권을 탈고했다. 추후 얼마나 더 쓰게 될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미 발표작까지 합쳐 현재 총 25권을 저술한 셈이다. 졸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의 연재 글을 관심 깊게 읽어주신 애독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만식 소설 냉동어(冷凍魚)/ 단편으로 소개되지만 사실상 중편임



소설가 한상희
담양 출생
성대 영문과 졸업
홍익대학원 미술사학과 중퇴
장편소설 등 20권 저술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하얀 눈

지난밤,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매섭게 퍼부었다.

여기저기 sns에 훑날리는 눈발만큼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사진과 글들이 올라온다.

눈이 오니 서둘러 가정으로 귀가하는 분.

눈이 오니 술 한잔 하자하는 분.

눈이 오니 택시가 안 잡힌다고 투덜거리는 분.

눈이 오니 내일 출근길 걱정과 장사를 서둘러 마감하는 분 등등.

나는 잠시나마 어릴 적 시골 들판에 하얀 눈 위의 썩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던 동심으로 돌아가 본다.

‘눈’이라는 자연 일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

누군가는 그리움으로 아니면 한순간 가슴속 후련함으로.

아마 3년 만에 내린 눈이라 더더욱 체감의 정도는 확연한 것이 아닐까.

눈이 쌓인 고즈넉하고 포근한 풍경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과 여유를 주고 순간순간 가슴 벅찬 일상에 활력이 넘칠 듯하다.

따스한 마음과 공감이야말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그리하여 겨울은 겨울답게 하얀 눈이 내려줘야 아름다운 시상으로 살아가는 예술인에게도 창의적인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빙판길로 인하여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얀 눈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함박눈이 탐욕으로 메말라버린 이 세상을 소복소복 덮어서 사랑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본다.

소소하지만 다양한 빛으로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눈송이 하나하나에 실려 날려 보낸다.



박양기
군산시민예술촌 촌장
전) 진포문화예술원 원장
pygdrum@hanmail.net

코로나와 좋은 정치

코로나 정국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일상적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바짝 움츠러 들고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생활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전 인류의 80명 중에서 1명꼴로 감염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 것이다. 다행히 미국, 독일 등에서 백신개발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황 악화는 악화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 여당에서는 14조원에 달하는 제4차 국가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은 형편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의 재난지원금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같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재정지원의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제, 대기업의 이윤을 함께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사회적인 차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사회적 연대기금 등의 법제정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일시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팽창을 우려하기도 하는 국내외의 목소리도 나오는가 하면, 과연 이러한 법으로까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삶의 순간이 심각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처지에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지원조치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

한 와중에서도 국가재정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자신의 선거와 득표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재난지원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대로 갈 사람한테 가는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등의 진솔한 접근보다 내년의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여당, 야당, 정부 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요소가 드러난다. 일부는 그것이 정치를 겨냥한 대중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겉으로 내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계산된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이드 발언하여 인기를 얻어가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듯 한 정치적인 쇼우를 벌리는 정치인, 단체장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정부가 주는 것에서 포획된다. 정부가 돈을 뿌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대중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단체장들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것이 심화되면서 소위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 포퓰리즘에 휩싸이게 된다.

선거인들은 항상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정치인들이 쳐놓은 포퓰리즘적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좋은 지도자로 선출하지만 실망하는 그러한 투표행위가 반복되어도 역시 대중은 선거의 마술에 끌려서 상황

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실패한 지도자, 망한 국가들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사이드 발언에 속고, 탈진실의 정치쇼에 자신이 묻혀가는 시대의 흐름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야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다.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좋은 정부, 탁월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여 고통 받는 사람이 적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진실과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탁월한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되며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얼마나 잘, 그리고 빨리 끝내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의 책임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있다.



송재복
(사)전북미래연구원장
전 Stanford University 객원교수
sjb0814@hanmail.net

불임치료를 대하여

여성분의 다낭성난포증으로 인해 결혼 5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 등의 양방 시술에 번번히 실패하다가 2020년 노블한방병원에서 3개월간의 침구치료 및 한약투여 후 3개월간의 침구치료를 시행해서 정상 임신이 되고 건강하게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서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치료 조례들이 시행되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조례가 제정되어 2년째 난임부부들에 대한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부가 배란일에 맞춰 합방을 했을 때 수정이 되고 착상에 이르러 임신이 되는 경우의 확률은 3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3달 정도를 배란일에 맞춰서 합방을 했을 때 임신될 확률이 높고, 의학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한 부부가 임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불임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상인 경우 1년 이내에 80-90%가 임신을 합니다. 또한 2년 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과거에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를 원발성 불임증, 자궁외 임신과 같은 임신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 불임증이라 분류합니다.

최근 공해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불임증 환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가임연령에 있는 성인의 10-15%가 불임한 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임의 원인

일반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 정도씩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원인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 성기에 이상이 있거나 발육이 부진할 경우입니다.
2. 월경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배란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몸이 너무 마르거나 너무 뚱뚱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궁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배란이 되더라도 자궁 내막이 제대로 증식하지 못해 수정란이 착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난관에 이상이 있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은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에게 빈혈이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고프로락틴혈증 등의 전신 질환이 있거나 다낭성난포증,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질염, 자궁 경부염 등의 생식기 질환이 있을 때에도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심한 피로와 과도한 흡연, 음주, 스트레스, 고환염, 성병, 전립선염 등이 있을 때 불임이 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불임의 원인을 규명할 경우 임신 성공률은 64%까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남편의 정자 수 운동성이 정상이어야 하고 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자궁경부 점액을 통해 자궁 및 나팔관을 통과하여 난자와 만나야 하며 아내의 난자가 정상적으로 성숙하여 배란된 뒤 나팔관으로 흡인되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임검사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먼저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성의 경우는 제외하고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불임증에 대한 부분만을 설명하겠습니다.

한방적 치료

한의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불임증에는 우선 월경상태를 조사하여 이것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우선입니다. 불임의 원인이 자궁자체의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일차적으로 수술요법을 시행해야겠지만 염증이나 스트레스성, 기능성 불임증일 경우는 변증하여 한의약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침 : 전신 기능을 조절하는 사관과 부인과 의 요혈인 혈해 누곡 삼음고 등을 기본으로 변증에 맞게 추가합니다.

뜸 : 중완 기해 곡골 등 중초와 하초를 댄혀서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혈을 기본으로 변증에 맞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탕약 :

· **신음허형** - 조열이 있어 땀이 붉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가슴이 답답하고 손바닥에 열감이 있다. 또한 얼굴에 윤기가 없고 몸이 약해지며 변비가 있다. 갱년기, 노년기 불임.

· **신양허형** - 아랫도리가 힘이 없고 몸이 너무 차가운 냉증을 호소하며 전신무력감과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경향이 있고 건망증이 있는 경우.

· **간기울체형** - 월경 때 마다 아랫배, 옆구리 유방이 불어나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자주 몰아쉬며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갑자기 화를 잘 낸다. 월경량은 많았다 적었다 한다.

· **충맥혈허형** - 손발이 차고 배가 냉하며 추위를 잘타고 생리통이 있고 냉대하가 있는 경우.

· **임맥기허형** - 아랫배가 차고 생리불순하고 손발이 차고 월경색이 검은 경우.

· **혈어형** - 자궁내막증, 자궁염증, 자궁근종 등의 기질적 장애가 있는 경우.

· **습담형** -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비만한 경우, 평소 잘 붓는 경우.

· **비허담습형** - 얼굴이 하얗거나 누르스름하며 자주 붓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몹시 두근거리며 손발이 차고 맥이 없다.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하며 혀에는 번들거리는 설태가 끼고 맥은 약하다.



최연길
군산 노블한방병원장
전) 신명한의원 원장
전) 군산시한의사회장
chshch@hanmail.net

아! 대한민국

2021년 G7 의장국인 영국은 정상회담에 인도, 호주와 함께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작금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상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내외입니다. 가히 고구려 광개토태왕이나 민족적 창조력이 웅비하던 조선조 초기, 세종대왕 치하의 시기를 거의 넘어서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금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선진국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보고 재빠르게 따라가는 페스트 팔로워 전략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부국강병한 복지국가 공동체를 가리키는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를 그려가며 전인미답의 미지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기조차도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조선 말기 쇠국 같은 최악의 무지한 역사도 있었지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미지의 미래세계에 대한 개척자, 창조자로서의 역량이 절실한 역사적 기로에 다시 서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중요한 전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국내의 모든 정치 세력이나 집단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가적 비전과 대의에 대한 헌신적이고 공공적인 사고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를 가장 강하게 규정하고 깊게 포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위상은 진실로 진보나 보수의 한쪽 진영의 공로나 성과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성취였음을 공히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조건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권이나 언론을 보면 국가적 대의 보다는 철저히 정파적 이해관계에만 몰두하며 복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세상에 옳기만 하거나 나쁘기 만한 정파나 개인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인 기회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생각과 지향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파들까지도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만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회적 창조역량이 극대화되고 처한 상황에 최적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황진
중앙치과 원장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byul-bada01@naver.com

서해대학 문을 닫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이 설치·경영한 서해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의 폐쇄일은 2월 28일이다. 서해대학은 지난 1973년 3월 군산전문학교로 설립됐고 1977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 1979년 1월 정식 전문대학으로 승격된 뒤 1993년 군산전문대학으로, 1998년 서해대학으로 잇따라 교명을 변경, 설립 후 48년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서해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호남기독교학원에서 세운 대학이었으나 호남기독교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었고,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해대학이 2001년 군산기독교학원으로 분리된 후 경영을 맡게 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군산·익산노회 내부의 알력다툼과 운영상 파행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4년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해 학교를 인수한 이모 이사장은 학교를 인수하자마자 무려 146억원을 횡령했다는게 밝혀졌다. 불과 40세의 나이에 학교를 인수한 이이사장은 인수직 후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증명서를 위·변조했으며, 학교를 인수할 재력이 없음에도 사채를 빌려 재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교육부 고위 관료에게도 뇌물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2015년 12월 교육부는 모든 임원들을 해임했고 다음해 2월 관선이사들이 다시 파견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비 횡령액 146억 원 보전(전 이사장 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9억원·교비적립금 62억원)등의 시정을 3회에 걸쳐 요청하고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

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나무위키 참조)

대학은 지식과 정보,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연구기능, 봉사기능과 입지한 지역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기능 등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학은 지역의 역동성을 견지하는 근원이 되고 결국 지역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긍정의 효과에 지역의 인재를 교직원 및 다양한 영역 등의 형태로 고용을 확장하는 공간이 되고 학생, 직원 등의 소비를 통한 간접소비 효과의 증진에 따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그리고 지역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 구이탈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연령의 감소로 인한 대학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 지역에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지역에 경쟁력이 되고 지역경기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는 것인데, 50여년의 전통을 지닌 학교가 개인의 욕심으로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너진 대학을 다시세우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생존을 위해 공간을 사수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공간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전문 합숙 훈련센터' 같은 시설로 활용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정착 할 수 있는 인격적 기본소양과 전문 직업능력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으로 활용 해도 좋을 듯하다.

서해대학, 군산의 역사.

그 역사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은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는 기독교

한 해에 딱 두 번 양대 명절에나, 순 쌀로만 지은 쌀밥을 먹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사흘에 어머니는 집 앞 농로 다리목에 가서 알 수 없는 어느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렸다.

깨끗하게 정리된 벼짚을 깔고 그 위에 순 쌀로 정성스럽게 찼 백설기 떡과 무로 끓인 나물국 그리고 정하수를 떠 놓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치성을 드렸다.

물론 간절한 어머니의 바람은 남편을 비롯한 자식들, 온 가족이 무병장수하고 자손은 복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시절에 모든 부모의 바람은 자식의 건강과 출세였을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어 줄 대상은 오직 본인이 의지하는 어느 이름 모를 신이었다. 그러나 정작 어린 우리는 어서 치성 드리는 일을 마치고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백설기를 먹을 시간이 되기만을 치성 드리는 어머니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일 년여를 보내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독교의 속살이 훤히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대상이 되어버렸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조상에 절을 안 하고, 산소에 가서도 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의 처지에서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우상 숭배 금지

라는 계명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었다. 이집트의 옛 신전터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돌기둥 오벨리스크(obelisk)는 태양신(the Egyptian's sun-god Ra)을 섬기는 상징이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는 또 다른 신들이 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농토를 주관하는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스다롯'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다.

그래서 반복하여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치하게 자신만 섬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치성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 섬기는 우상이 절대 없는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 형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치성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많은 복을 받아서 무병장수하고, 자녀가 복받고, 농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바람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행위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밤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열심히 헌금을 할 때,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심지어 기독교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가,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잘

보이고 점수 따서 감동을 주는 대가로 복을 받겠다는 것은, 치성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중요하다. 조상의 제사상 앞에서 큰절하며 '우리 후손들을 굽어살피시고 복을 주소서'라는 바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신을 감동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 그런 절은 우상 숭배가 된다.

집합 예배를 못 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면, 최소한 이만큼의 헌금은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뿐이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장소가 교회당일 뿐이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가 강단에서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설교라는 행위를 빌려서 하나님이라는 우상 앞에 치성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성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지 말고, 헌신과 나눔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라.

이것이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남대진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환경 운동가

신축년 코로나19 극복!! 아트테리토리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2021년 신축년 새로운 아트큐레이터(김상훈)를 선발하여 개복동 거리에 다양하고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아트테리토리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드는 사람(예술가)과 보는 사람(관객) 사이의 접근성을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길거리 전시장'이다. 이는 젊은 예술창작자를 발굴하고 나아가 이곳 개복동 거리에 새로운 볼거리와 관객들의 유입으로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올해 첫 문을 여는 윤여름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석사를 졸업한 뒤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다양한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써, 이번 아트테리토리에 작품은 인간관계속에서 어떤 채워지지 못하는 간극과 허전한 느낌을 표현해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소통과 모순의 역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작품으로 준비하였다.

윤여름작가의 이번작품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에서 24시간 관람이 가능하다.

군산시민예술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쩌다 예술' 강사모집 및 수강생 모집

군산시민예술촌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어쩌다 예술'에 참여할 문화예술강사를 1월28일 ~ 2월10일까지 공고하며 모집은 2월 3일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어쩌다 예술'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며 더 나아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 공예, 미술, 음악, 문학, 연극, 무용 등 군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사면 누구나 강사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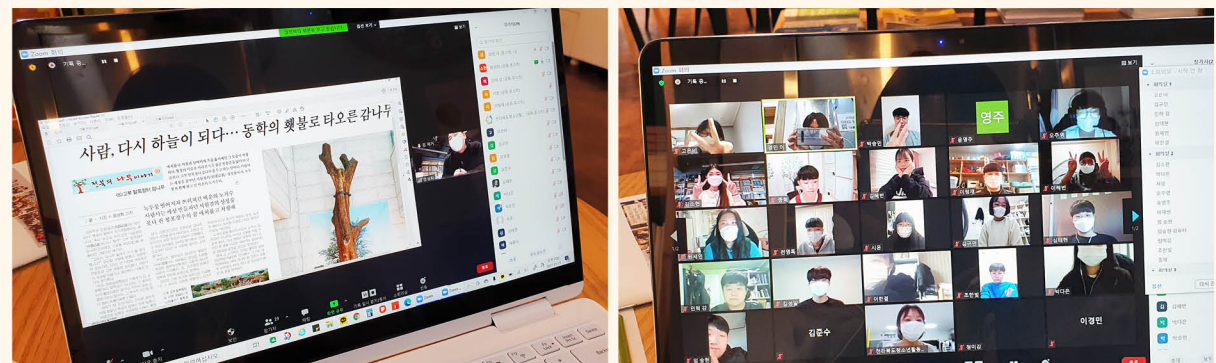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http://www.gsartzone.kr/>) 예술촌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2월 18일(목) ~ 2월 27일(토)까지 진행되며 접수방법은 전화(443. 7725)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파도에 일렁이는 사회



ASPECT 청소년기자단은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함께하게 될 동료들을 찾는다. 올해도 어김없이 7기 신규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인턴쉽 당일, 태헌 청소년이 가져 온 개인 대본에는 조별 토론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고민한 진행멘트, 역할분담 등 간담의 노력들이 적혀있었다. 2021년 청소년 기자 인턴쉽은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조장을 맡아 기획취재를 조원들과 함께 구성하고 기자님에게 피드백 받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준비할 것들이 많았다.

활동을 한달여 앞두고 임원들과 인턴쉽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처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기자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배 청소년들은 각자가 경험한 기자교육, 취재실습을 돌아보았다. 본인이 처음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던 요소는 무엇이고, 첫 교육에서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임원들이 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임시 취재계획을 수립해보면 기사에 더 많은 사회의 모습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원들은 로컬푸드, 기후위기, 청소년 자격증 등 각자가 미리 조사를 해오고 싶

은 주제를 내고 담당을 나눴다. 작년부터 전주 청소년기자단도 함께 협력하고 있었고, 임원 청소년들도 주도적으로 조별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4개조를 분담해서 맡기로 결의했다. 별하 사회참여 자원활동가 청년 대표도 함께해 지원할 일들을 찾아갔다. 이후 이루어진 사전 취재원 섭외를 위한 전체 모임에서도 청소년, 자원활동가 모두 자신들이 진행하고 고민해야 할 영역을 분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승현 청소년이 전화를 걸어왔다. 본인이 여러 생각을 해보았는데 취재계획을 미리 세워두긴 했지만 그래도 의견을 더 많이 교환 할 수 있는 자료화면과 영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임원들과 각자 기후위기, 방역수칙 준수, 아동학대의 지역사회 현실과 관련한 문제제기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취재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목적 아래 자료를 올려보며,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들이다.

1월 23일 토요일 오후 ZOOM 화상회의에 모인 30여명의 청소년들은 언론 골든벨을 통해 취재의 기본요소를 알아갔다. 이후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의 강의를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 문제 분석부터 현장답사를 통한 문제검증, 전문가 및 설문을 통한 대안제시까지 기사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말하는 기획취재의 실재를 배울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조별로 취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기자님의 피드백까지 받은 후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협력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인턴쉽이 채워졌다. 다음날 청소년기자단 임원, 자원활동가들과 평가회의를 가졌다. 소감발표에서 이번 인턴쉽이 하나의 파도와 같았다는 표현을 했다. 미리 준비했기에 원활히 진행 될 수 있었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참여 청소년들의 열정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파도에 그들이 바라본 사회가 일렁였다. 정재 청소년은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진행한 점이 감염병 사회에서 방역을 실천하는 사례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승현 청소년은 본인이 속한 조의 주제인 '기후위기'는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심각성에 공감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활동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걸음을 한발 더 내딛게 되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youthautonomy /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카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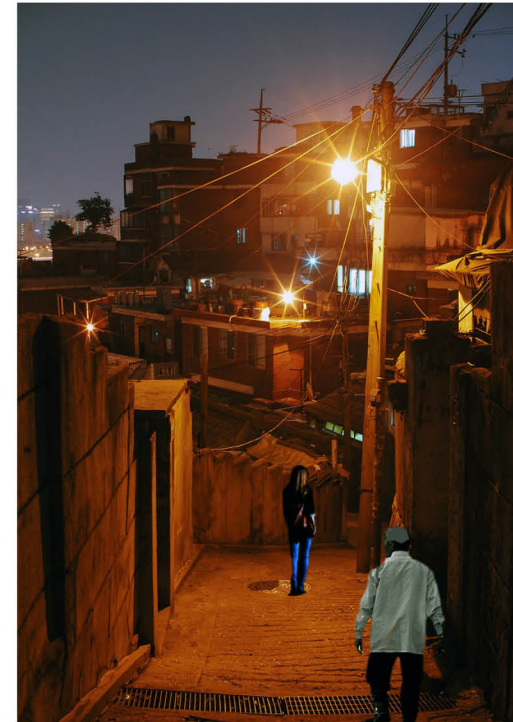
카페 <음악이야기>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의욕이나 희망 대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카페 <음악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 이 소설을 통해 함께 웃고, 같이 울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진, 배경, 인물은 모두 허구입니다.

잃어버린 꿈

지후 (2) “왜 김성만씨를 폭행한 거죠?”
책상을 두고 맞은편에 앉은 경찰이 지후에게 물었다.
“폭행한 적 없는데요.”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목격자가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요.”
“그런 적 없다고요.”
“꼭 때려야만 폭행이 아니에요. 밀어서 넘어뜨리는 것도 폭행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지후는 떨리는 입술로, 그러나 경찰의 눈을 똑바로 보며 흐트러짐 없이 말했다. 그때 옆 테이블 앞에 앉아있던 술집에서의 시비남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니가 밀었잖아!”
“선생님, 조용히 좀 하세요.”
지후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찌질남에게 말했다.
“강지후씨 얼른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경찰관의 말투는 고압적으로 느껴졌다.
“안 했단니까요.”
“그런데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기절까지 해요? 목격자가 있단니까요.”
지후는 몸을 바르르 떨었다. 목격자라는 말에 춘천댁 아줌마를 떠올렸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 지후는 금방이라도 울고 싶었지만 꼭꼭 참았다. 더는 말하지 않기로 생각했다. 그 후로도 경찰관은 몇 번이나 지후를 다그쳤지만 지후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러면 강지후씨한테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협박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지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다. 한 사람은 협박과도 같은 종용을 하다가 회유와도 같은 제안을 하면서 진술을 받아내려 했고 한 사람은 계속 묵비권으로 응한 채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때쯤이던가 경찰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지후에게 진술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말했다.
“김성만씨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데요?”
지후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됐다.
“그래? 그럼 김성만씨 건은 대질하면 되겠고.”



경찰관은 혼잣말처럼 말하더니 지후 옆에 앉아있던 찌질남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은 왜 오셨다고 했죠?”
찌질남은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울 만큼 취해있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억지소리를 계속했다.
“강지후씨, 이 분이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
지후는 또 대답하지 않았다.
“야, 이 아가씨 완전 똥고집이네. 이러면 정말 강지후씨한테 불리하게 된다니까요? 이 분이 말한 거 다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경찰관은 최대한으로 지후를 배려하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야 빨리 인정을 해 이년아!”
찌질남이 앉은 채로 비틀거리며 욕을 했다.
“선생님,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뭘 인정해요? 아저씨가 먼저 시비 걸고 내 손목 잡고 집적댔잖아요! 때리려고도 했고요!”
지후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뭘? 집적?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너 정말 죽고 싶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내는 아까보다 더 광폭한 표정과 몸짓으로 금방이라도 지후에게 달려들어 때릴 기세였다. 그때였다.
“야 이 개새끼야!”
어디선가부터 목이 터질듯한 큰 소리의 욕설이 날아왔다. 지구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길이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다. 지후도 고개를 돌려 소리의 주인공을 찾았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머리에 붕대를 감은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엄마의 남자, 김성만씨였다. 그 뒤에는 춘천댁 아줌마도 서 있었다.



이현웅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Talk to Igor 결혼, 그에게 말하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전주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사랑나무양상블
'그대를 향한 위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2'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안화정의 Dance
with piano
군산 예술의전당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2'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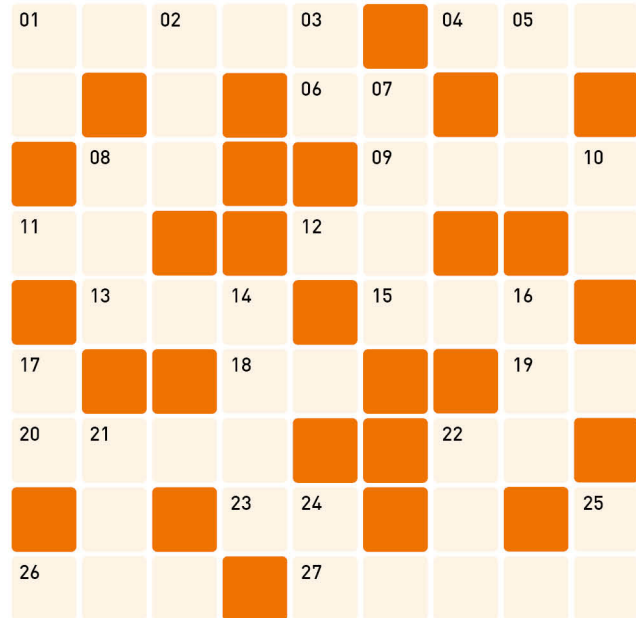
전시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24(목)~02.07(일) 자연스럽개展



-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 | | |
|--|---|--|
|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
|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
|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15



<제114호 퍼즐 정답>

한	부	모				신	축	년
들	창	코			미	용	사	
애			로	맨	스			행
마	라	도	나		터	치	라	인
		화				안		
호	연	지	기		언	감	생	심
패			병	무	청			콩
결	사	대			이	유	기	
비	혼	모				정	전	기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한 사람의 배우가 모든 배역을 혼자 맡아 하는 연극.
- 04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바른 종이.
- 06 '오줌 누는 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잠깐 ㅇㅇ 좀 보고 오겠습니다'.
- 08 기체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료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 부탄 등
- 09 훔치거나 범죄 행위로 얻은 물품을 매매,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 1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 12 등반기와 팔걸이가 있는 길고 폭신한 의자.
- 13 세례 때에 붙는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성인의 이름을 따.
- 15 가로막아서 거처적거리게 하는 사물.
- 18 정식 명칭을 간단히 줄여 이름. 또는 그런 명칭.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의 ㅇㅇ이다.
- 19 별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
- 20 일제가 조선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역사관
- 22 간절한 정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물품을 줌. 또는 그런 물품.
- 23 48장으로 된 놀이용 딱지. 고스톱, 육백, 짓고땡 따위의 놀이 방법이 있다.
- 26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 27 명절의 하나로 음력 1월15일을 일컫는 말.

▶ 세로 열쇠

- 01 제 어미의 젖.
- 02 원피스로 된 여성용 겉옷. 웨딩ㅇㅇㅇ.
- 03 말과 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05 좋은 때를 타고 활약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 07 서로 낯과 못함이 없음. 상대의 행동에 따라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맞서는 일을 일컫는 말.
- 08 미납 세액에 대하여 본래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 10 당번이 아님. 오늘은 ㅇㅇ이라서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 14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 16 문장 부호 ?의 이름.
- 17 음식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먹음.
- 21 나무가 없는 맨송맨송한 산.
- 22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태평양전쟁 때 일제가 군수공장 등 각종 근로 현장에 강제 동원한 식민지 여성들 무리.
- 24 무엇이 모자라거나 못마땅하여 떼를 쓰며 조르는 일.
- 25 피부가 쇠하여 생긴 잔줄. 옷의 가닥을 접어서 줄이 지게 한 것.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생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small>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small>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small>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small>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올포유에서 베리-굿

정기
세일 70% ~ 50%
sale



ALLFORYOU

-정상·상설복합점-



올포유에서 시즌마감전

군산나운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17 (나운동) Tel. 063) 463-9693

군산수송점

전북 군산시 수송동 802-16 Tel. 063) 468-3900

No.1 스포츠캐주얼 올포유